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1. 7. 28 (수) 10:00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유기홍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해외 노동교육 사례와
한국에서 학교 안
노동교육 필요성



송주명
한신대 교수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살펴보는
학교부터 노동교육
필요성



장윤호
이천제일고 교사

2022 개정 국가교육
과정과 학교에서
노동교육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

일하는 청소년·청년이
요구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

토론회 순서

시간	순서		진행
-10:00	<사전행사> - 영상 상영 "지금 당장!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하라!"		
10:00-10:15	<개회> - 토론회 개회 - 인사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인사말: 윤미향 국회의원		사회 :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0:15-10:45	국제	해외 노동교육 사례와 한국에서의 학교 안 노동교육 필요성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10:45-11:05	교수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학교부터 노동교육 필요성	송주명 한신대 교수
11:05-11:25	교사	2022 개정 국가교육 과정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장윤호 이천제일고 교사
11:25-11:45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청년이 요구하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이사장
11:45-	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목차

인사말	06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유기홍 국회의원	
- 윤미향 국회의원	
[국제] 해외 노동교육 사례와 한국에서 학교안 노동교육 필요성	11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교수]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살펴보는 학교부터 노동교육 필요성	23
: 송주명 한신대 교수	
[교사] 2022 개정 국가교육 과정과 학교에서 노동교육	37
: 장윤호 이천제일고 교사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청년이 요구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	89
: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이사장	



인사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양경수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유기홍 의원님과 윤미향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시간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주신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님, 송주명 한신대 교수님, 장윤희 이천 제일고 선생님,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2일,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운동본부에는 현재 170여 개의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법제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벗기 전에 제대로 된 노동 교육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줄도, 읽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장 실습 나가서 위험한 화학 약품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2인 1조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는데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희롱과 차별 무시를 당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노동 교육이며, 이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학교에서 노동 교육이 제도화 된다면 노동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직률 제고를 위해서도 노동 교육은 절실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대로 세워준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어지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분배 정의로 이어져 부정부패와 비리가 척결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자로 살아가지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용자의 관점과 권리만 배우면 온전한 노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학교 안으로 노동 교육이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그리고 학교부터 노동 교육 운동 본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7월 28일
민주노총 위원장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양경수



인사말

유기홍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입니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와 윤미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기숙사 건물의 청소를 혼자 담당했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업무 강도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관리자의 갑질과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재작년 폭염 속, 창문 하나 없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큼니다.

2019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8.5%가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교육은 연간 1~2시간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조차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노동과 인권에 관한 진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된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7월 28일
국회의원
유기홍



인사말

윤미향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윤미향 국회의원입니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유기홍 의원님,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와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평택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선호(23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가 아들의 추모문화제에서 외치던 절규입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이렇게밖에 함께 할 수 없어 참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선호 씨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노동현장에서 ‘알바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하는 수많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247만여 명 중 6.8%가 취업 중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9%였고, 이 중 고등학생은 15%가 ‘알바생’으로 일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나이도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들의 노동현장은 어떠했을까요. 61.1%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조차 몰랐던 청소년들은 예정에 없던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으며, 임금 떼이기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들의 5.4%는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 등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청소년들의 70%는 그저 참고 일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1960~70년대 산업역군으로 불리던 노동자들의 인권현실과 2021년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47만여 명의 청소년들은 예비노동자이자 이미 노동자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를 못하니 저런 일을 한다’는 노동 비하발언이 서슴없이 내뱉어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 정규 수

업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노동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노동인권의 본질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와 함께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또 다른 학업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인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988년 15살의 나이에 산재로 사망한 문송면 열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문송면 노동자는 왜 자신의 몸이 아팠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노동자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일하는 청소년들이 문송면 열사와 같은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나선 박노자 교수님, 송주명 교수님, 장운호 선생님,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땅 청소년들의 삶을 겸허하게 마주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분 한 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김복동 할머니의 마음으로 저도 손을 내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8일
국회의원
윤미향

발제 1.

해외 노동교육 사례와 한국에서의 학교 안 노동교육 필요성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노동 인권 교육이 왜 시급한가

The Fight for Labor Rights

Middle and High School
KQED Education

10대들의 노동인권 실태 (단위: %)



한국
10대들의
노동권
침해 현실,
참담하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의 정규 교육은, 노동인권 문제를 거의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현재 교과서의 노동 관련 교육 분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사회 : 노동 문제 없음	사회 : 170시간 중 2시간 분량	고1 사회(선택) : 1.8시간 분량 법과 사회 (선택) : 1시간 분량 사회문화 (선택) : 1시간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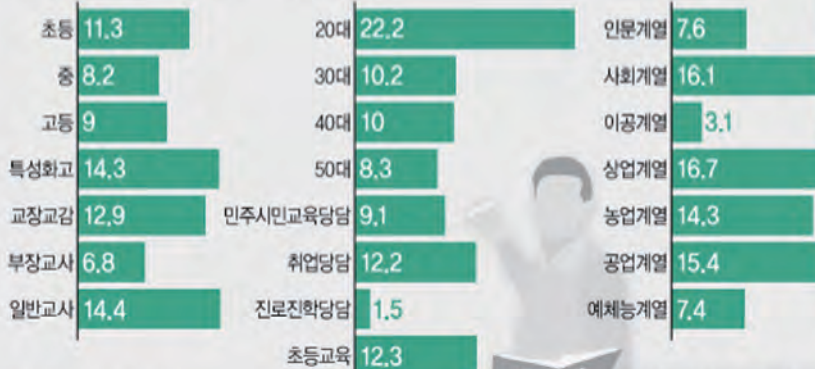
2015 교육과정 개정 노동교육 관련 쟁점

- 중학교 사회, 신설 고교 필수과목 '통합사회'에 노동권 문제 포함 (중학 사회 2.2시간, 고교 통합사회 2.3시간 분량 불과)
- 노동·금융시장에도 시장원리 적용
- 초·중·고 공통, 선택과목 모두에 '기업가 정신' 교육 포함

현직교사 노동인권교육 수강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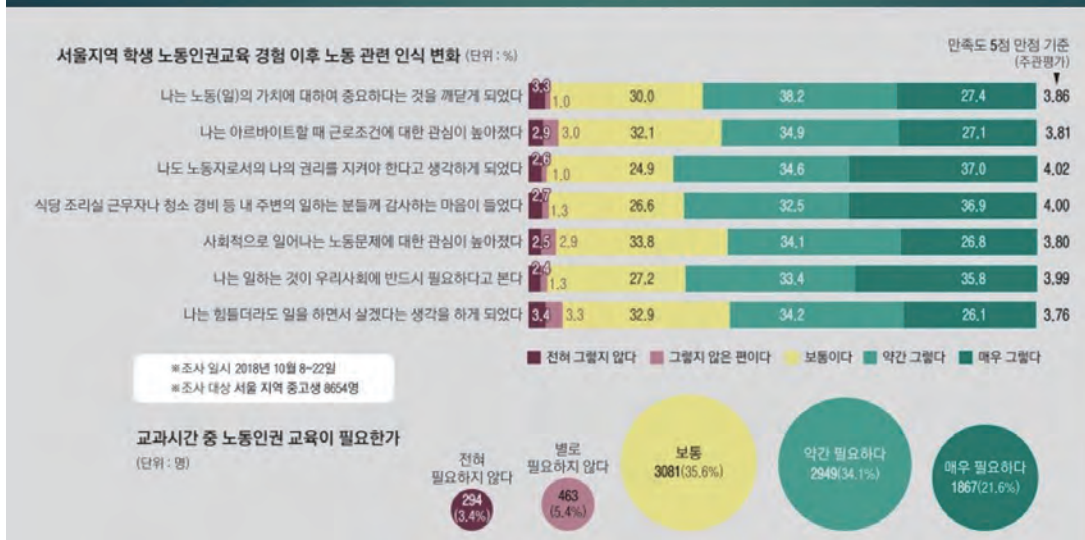
대학 재학 시 노동·인권교육 수강여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심지어 대부분의 학교 교사들도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동 교육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히 보이지만, 그 교육의 시간과 내용은 부족하다.



노동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서 소략하기도 하지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고임금이 실업을 부른다” 든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정부 실패의 사례” 라든가 노동 현실의 왜곡 사례들도 보인다.

6년 전에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중학교 3학년 288명과
고교생 등 청소년 2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가 '노동자' 같은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56,5%가 '노동3권'의 내용을 몰랐다.
부족하고 왜곡된 교육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설문조사

부당노동행위 경험(경험자 복수응답)	
1위	근로계약서 미작성(75.9%)
2위	임금삭감·미지급(61.3%)
3위	산업재해보험 미가입(58.3%)
4위	최저임금 위반(57.4%)
5위	육살·폭언(15.4%)
부당대우 때 대응법(경험자 복수응답)	
1위	그만둘(45.8%)
2위	해결법 몰라 무대응(30.1%)
3위	참고 계속 일함(28.7%)
4위	개인적으로 항의(11.3%)
5위	노동청에 신고(5.3%)

자료 : 광주 정책연구소



5년 전에 <경향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에게는 '노동'은
'힘듦'과 '노예, 천민'을 떠올리고, '노동자'는 '인부'와 '배관공', '마트
계산원'을 떠올렸다. 대부분은 졸업하면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되지만,
노동을 무시하는 교육의 결과로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했다.



직종	학생 희망	취업 현황
관리직	10.1	1.5
전문직	55.7	19.8
사무직	8.1	16.7
서비스직	13.8	10.3
판매직	1.2	11.9
농림어업숙련직	1.2	6.0
기능직	5.1	8.9
장치조작직	4.3	11.9
단순노무직	0.5	13.0

단위: %, 자료: 2015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프랑스: 초-중학교에서 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
 시간에는 산업화 시대 역사, 과거의 노동 현실,
 노동자 권리 쟁취 역사 등을 배운다.



고등학교 역사지리, 시민교육, 경제사회 과목에
 서 노조 결사의 권리와 파업권, 그리고 총파업
 등 노동투쟁사를 배운다.



프랑스의 노동 교육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은 젊은이들의 노동권 인식과 노조 관련 의식을 높이는 데에 유용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부족한 편이다.

18 LES DROITS ET LES DEVOIRS DE LA PERSONNE, DU CITOYEN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Expliquez avec
vos propres mots les
articles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Quelles sont les
difficultés de la
liberté de la presse?
Quelles sont les
difficultés de la
liberté de conscience?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Quelles sont les
difficultés de la
liberté de la presse?
Quelles sont les
difficultés de la
liberté de conscience?

article 1. Tous les êtres humains naissent libres et égaux. Ils demeurent libres et égaux devant la loi. L'homme est né libre, et à la liberté et à la propriété de sa personne.
article 2. Tout être humain a droit à la liberté et à la sécurité de sa personne.
article 3. Tous sont égaux devant la loi.
article 4. Toute personne a le droit de rester librement, sans contrainte et de religion.
article 5. Tous les individus a droit à la liberté de conscience et d'opinion.
article 6. Toute personne a droit à la liberté de pensée et d'expression.
article 7. Toute personne a droit à un procès équitable.
article 8. Toute personne a droit à la protection de la loi.
article 9. Toute personne a droit à la présomption d'innocence.
article 10. L'individu a des devoirs envers la communauté.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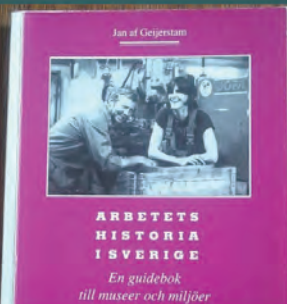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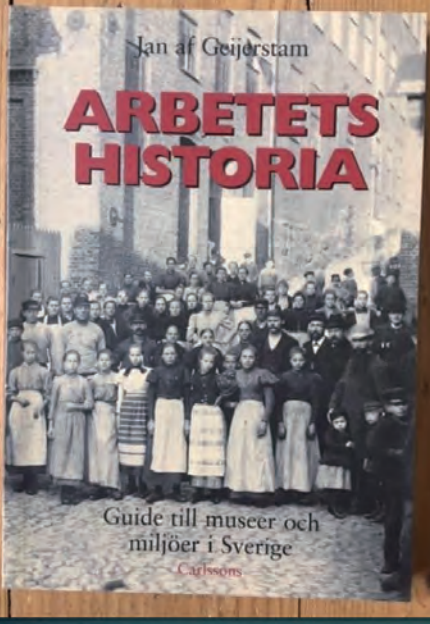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 inspiré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adoptée en 1948. Elle proclame des droits similaires pour tous les êtres humains, le monde entier, partout.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En 1789, pendant la Révolution, les députés ont adopté l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C'est le premier document de ce genre en France. Il a inspiré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en 1948.

avant personnel pour de l'histoire de justice sociale par les Droits de l'homm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 inspiré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en 1948.



스웨덴의 학교에서는
이미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회 보장과 노동자 권리
등의 개념은 자세히 설명된다.
고등학교 때에 2주 정도 일터
체험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Norrköping의 노동사
박물관 등 노동사 연구
기관들은 또 노동사 관련
연구, 교육 자료를 출판,
배포한다.

독일 학교에서의 ‘노동학’ (Arbeitslehre)은,
 기본적 경제 개념들을 설명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노르웨이 고교 교과서들은 노동 투쟁사를
 상당히 자세히 반영하고,
 오늘날 노동자 권리들이
 어떻게 쟁취되었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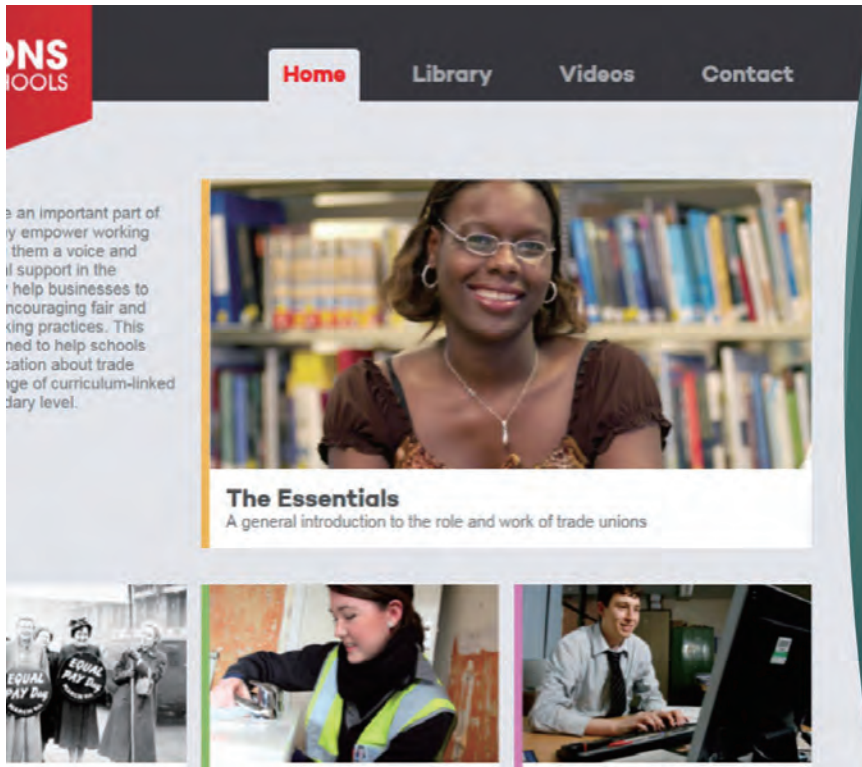




**노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초등학교 시절부터
체계적인 심화학습**

**노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노동 교육과 시민 교육의 결합.
“시민 즉 노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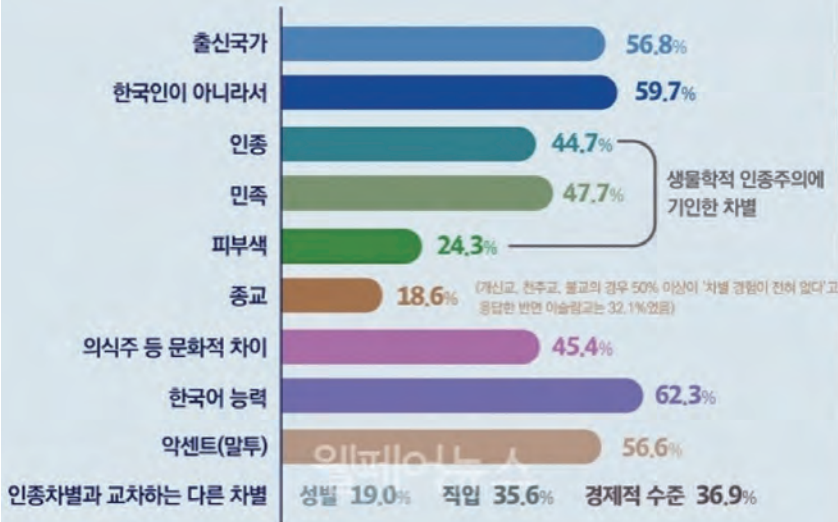


노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노조의 조직, 운영, 특성, 역할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학습이 필요하다.

노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각종 편견, 반노동적 경향의 극복에 도움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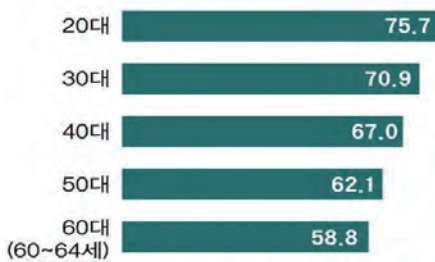


한국사회 인종차별 현상의 특징 1
차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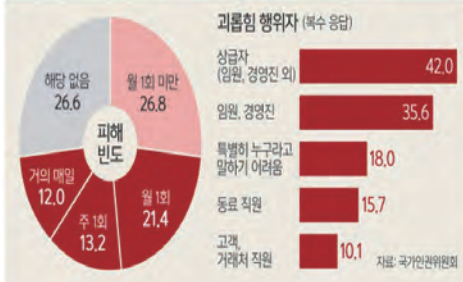
노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여성, 청소년, 이민자
노동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차별 극복에
도움돼야 한다.

1년간 현재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 경험률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괴롭힘 당하는 직장인들 (단위: %, 만 20~64세 임금근로자 1506명 대상 조사)



결론:

‘노동이 없는/안보이는’ 교육은
갑질과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매우 높은 산재 피해율이 판치는,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극도로 비민주적인 일터 현실의
원인 중의 하나다.
‘헬 조선’식 직장 ‘문화’의 극복에
노동 교육 강화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발제 2.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살펴보는 학교부터 노동교육 필요성

- 송주명 한신대 교수



문화적, 시대적, 사회적 맥락으로 살펴보는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대표, 한신대학교수)

1. 촛불혁명

- 2016년 촛불혁명
- 지연되고 장기화된 민주주의혁명의 잠정적 총화
- 19세기 중반부터 길게 지속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혁명
- 촛불혁명의 계기: 1987 형식적 민주주의의 위기
- 제한된 민주공화국의 위기
-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의 재생산
- 재벌중심의 국가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 노동배제의 사회체제
- 공공성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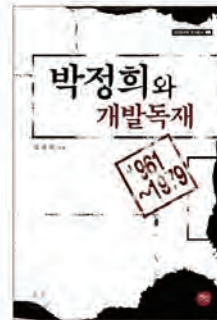
1. 촛불혁명



- 촛불혁명의 결과를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로 정착시킬 필요
- (1) 시민주도성 (2) 사회적 평등과 공공성 기초의 강화 (3) 그 공통적 기초로서 노동존중
- 공교육의 재구성
- 주권자 시민의 사회적 재생산
- 노동존중의 민주시민 형성: 노동존중=민주주의의 기반
- 민주, 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재생산
- 노동교육은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가장 핵심적 영역
- 시민교육의 핵심(기반)으로서 노동인권교육
- 노동존중의 민주적 정치사회시스템의 구축

2. 사회적 불평등의 시대: 노동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노동

- 점입가경, 불평등의 한국사회
- 한국,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경제성장
- 엘리트지배, 약한 국가복지, 성장의 지탱-->구조적 불평등
- 1997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
- 약30 여년의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의 팽창
- 양극화, 새로운 계급사회의 고착
- 학교: 불평등의 순응자 vs 대항자
- 교육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의 톱니바퀴
- 혁신교육과 보편적 복지장치의 강화, 불평등에의 대항자



2. 사회적 불평등의 시대: 노동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노동



- (1) 학생의 노동자화
-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불평등
 - SKY의 독점: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 특목고, 자사고 vs 일반고
 - 일반고의 퇴행 속 취약계층 학생들
 - 대학진학과정 vs 직업계 고등학교
 - 중고등 학생들의 노동과정 진입
 - 아르바이트 경험: 배달계통의 아르바이트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 이미 학교는 노동이슈의 중점으로 진입
 - 그러나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노동권 사각지대

2. 사회적 불평등의 시대: 노동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노동



< 아르바이트 경험¹⁾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고	특성화고
2013	13.3	13.9	12.7	6.5	19.8	15.2	41.1
2014	13.5	15.2	11.6	6.7	19.9	15.1	42.2
2015	12.2	12.1	12.3	4.3	19.5	13.7	45.0
2016	13.5	15.1	11.8	5.1	21.0	14.4	48.1
2017	12.2	11.9	12.5	5.0	18.1	12.6	41.2
2018	11.0	11.4	10.5	3.1	17.5	13.2	35.7
2019	8.5	9.5	7.5	2.7	13.6	11.2	28.5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연관실태조사」, 중·고등학교생 대상
 주 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1) 학생의 노동자화
-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불평등
 - SKY의 독점: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 특목고, 자사고 vs 일반고
 - 일반고의 퇴행 속 취약계층 학생들
 - 대학진학과정 vs 직업계 고등학교
 - 중고등 학생들의 노동과정 진입
 - 아르바이트 경험: 배달계통의 아르바이트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 이미 학교는 노동이슈의 중점으로 진입
 - 그러나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노동권 사각지대

2. 사회적 불평등의 시대: 노동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노동

(2) 학교내 교육노동의 확대와 정착

- 교육노동의 1차 주체로서 교원, 2차주체로서 교직원(공무원)
- 혁신교육과 학교내 교육노동
 - 무상급식, 보편복지
 - 교원업무경감: 행정기능
 - 교육내용의 업그레이드: 도서관
-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학교기능의 복합화
 - 보편복지
 - 상담기능
 - 돌봄기능, 방과후기능
- 노동공간으로서 학교
 - 다양한 노동주체에 의한 협력 및 이해갈등 공간
 - 학생들의 삶의 공간에서 보편적 노동문제가 상존
- 노동존중 학교문화, 노동존중 민주주의학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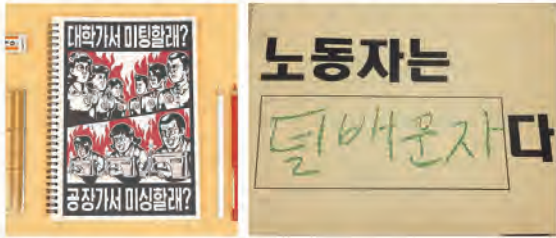
2. 사회적 불평등의 시대: 노동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노동

(2) 학교내 교육노동의 확대와 정착

- 교육노동의 1차 주체로서 교원, 2차주체로서 교직원(공무원)
- 혁신교육과 학교내 교육노동
 - 무상급식, 보편복지
 - 교원업무경감: 행정기능
 - 교육내용의 업그레이드: 도서관
-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학교기능의 복합화
 - 보편복지
 - 상담기능
 - 돌봄기능, 방과후기능
- 노동공간으로서 학교
 - 다양한 노동주체에 의한 협력 및 이해갈등 공간
 - 학생들의 삶의 공간에서 보편적 노동문제가 상존
- 노동존중 학교문화, 노동존중 민주주의학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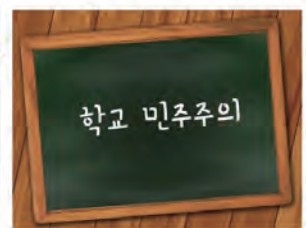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 (1) 문화적-역사적 맥락
- 촛불혁명이 남긴 역사적-문화적 민주주의적 과제
 - 불철저한 민주주의혁명과 엘리트주의(국가자본주의) 근대화
 - 상향 계층이동 지향의 한국사회
 - 노동천시의 전근대적 경향: 사농공상
 - 노동=육체노동
 - 노동은 모든 이들의 삶의 공통기반이라는 의식의 결여
 - 시민성의 기반=노동!! 자신과 타인의 노동을 존중
 - 노동은 천대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통기반
 - 주체로서 민주적 시민의 정체성과 건강한 기반 형성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 (2) 교육상황적 맥락: 혁신교육과 시민교육
- 2009년 이래 혁신교육의 전반화
 - 반특권교육, 민주시민교육성
 - 혁신학교와 학교민주주의
 - 교육감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시
 - 교과서 개발
 - 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민주시민교육법
 - 시도교육감 협의회 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추진
 - 지방자치체의 성인 민주시민교육의 전개
 - 민주시민교육센터
 -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네트워크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 (2) 교육상황적 맥락: 혁신교육과 시민교육
- 2009년 이래 혁신교육의 전반화
 - 반특권교육, 민주시민육성
 - 혁신학교와 학교민주주의
 - 교육감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시
 - 교과서 개발
 - 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민주시민교육법
 -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추진
 - 지방자치체의 성인 민주시민교육의 전개
 - 민주시민교육센터
 -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네트워크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주최: 국회의원 김민철, 박한대 공인숙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3) 시대적 맥락1: 현대 민주적 사회시스템의 재구성

- 87년 정치사회시스템을 넘어서
- 한계 지워진 정치적 민주화의 재구성 필요성
- 시민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공화국
- 87년 노동체제의 과제 재검토
- 87년 노동체제를 넘어선 노동사회의 재구축 방향
- '노동있는 민주주의'의 출발, 그 후는?
-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
- 역풍: '공정담론'의 문제
- 한국형 '민주공화제'와 새로운 '노동민주주의'의 재구축 과제
- 그 주체의 강화 및 재구성
- 노동정체성의 사회지변을 강화
- 노동=민주시민 활동기반의 강화, 확대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 (3) 시대적 맥락1: 현대 민주적 사회시스템의 재구성
- 87년 정치사회시스템을 넘어서
 - 한계 지워진 정치적 민주화의 재구성 필요성
 - 시민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공화국
 - 87년 노동체제의 과제 재검토
 - 87년 노동체제를 넘어선 노동사회의 재구축 방향
 - '노동있는 민주주의'의 출발, 그 후는?
 -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
 - 역풍: '공정담론'의 문제
 - 한국형 '민주공화제'와 새로운 '노동민주주의'의 재구축 과제
 - 그 주체의 강화 및 재구성
 - 노동정체성의 사회지변을 강화
 - 노동=민주시민 활동기반의 강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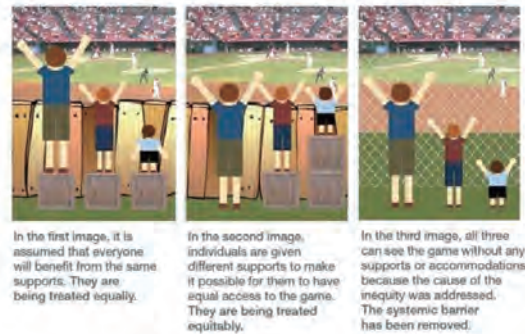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 (4) 시대적 맥락 2: 신자유주의 신드롬과 노동 비극의 극복
- 학교현장에서 "부자가 되라" 신드롬
 - 관념과 현실의 괴리: 부자 vs 비정규직 노동자
 - 초경쟁 교육(입시, 취업)
 - 시민적 정체성과 진로역사의 혼란
 - 공정담론, 시험물신화
 - 탈신자유주의 시대의 과제
 -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 건강한 삶, 진로의 개척
 - 공평(공공+평등)의 가치, 사회적 정의와 연대성의 회복
 - 세계적 생산, 이민과 이민노동
 - 노동의 국제적 연대
 - 세계 시민성의 회복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 (4) 시대적 맥락 2: 신자유주의 신드롬과 노동 비극의 극복
- 학교현장에서 “부자가 되라” 신드롬
 - 관념과 현실의 괴리: 부자 vs 비정규직 노동자
 - 초경쟁 교육(입시, 취업)
 - 시민적 정체성과 진로의식의 혼란
 - 공정담론, 시험물신화
 - 탈신자유주의 시대의 과제
 -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 건강한 삶, 진로의 개혁
 - 공평(공공+평등)의 가치, 사회적 정의와 연대성의 회복
 - 세계적 생산, 이민과 이민노동
 - 노동의 국제적 연대
 - 세계 시민성의 회복



3. 학교 노동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교육상황적, 시대적 맥락



- (5) 시대적 맥락 3: 4차산업혁명과 노동
- 4차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혁명
 - 인간의 본질에 대한 도전
 - 노동과 지성에 대한 도전
 - GAFA 독점체, 노동배제, 민주주의의 위기
 - 직업과 노동개념의 근본적 변화
 - 창의적 일(기술, 예술 등) 이외 노동의 (점진적) 대체
 - 초고속 직업 수명주기
 - 실업과 신규고용 부재→불용계급?
 - 새로운 일(노동)
 - 인간의 역사적-집합적 노동의 산물로서 인공지능
 - 기본적 기술의 이해와 디지털 리터러시
 - 인공지능시대 주체적 진로 설계
 - 지성적 다능 노동: 창의적 노동, 삶의 양식 변화
 - 여유 + 창의적인 삶 + 노동의 최소화
 - 4차산업혁명의 민주적 통제 기획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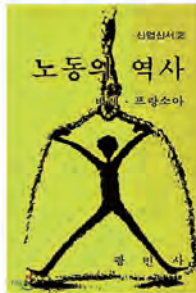
4. 노동교육의 개념과 범위

(1) 위상

- 시민교육의 기반으로서 노동인권교육
- 시민의 보편적 정체성의 기초로서 노동교육



4. 노동교육의 개념과 범위



(2) 노동교육의 내용과 범위

- 노동의 의미와 가치
- 노동의 역사
- 노동과 사회관계
- 노동과 경제관계
- 노동과 정치권력
- 노동법과 노동권
- 노동과 자기정체성, 진로
- 노동연대와 인권: 반차별 평등의식
- 세계 속의 노동: 세계노동의 연대
-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 4차산업혁명과 진취적 진로설계

4. 노동교육의 개념과 범위



(2) 노동교육의 내용과 범위

- 노동의 의미와 가치
- 노동의 역사
- 노동과 사회관계
- 노동과 경제관계
- 노동과 정치권력
- 노동법과 노동권
- 노동과 자기정체성, 진로
- 노동연대와 인권: 반차별 평등의식
- 세계 속의 노동: 세계노동의 연대
-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 4차산업혁명과 진취적 진로설계

5. 학교 노동교육을 어떻게 접근할까?

(1)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

- 개념과 범위: 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 초중등과 고등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

(2) 노동인권 교과 접근

- 교과과정의 개발 정규교과 인정
 - 교과서 개발 노동교육의 전문성 강화
 - 외부강사 투입으로부터 향후 교원의 역량형성
- Cf. 초기에는 창체시간 활용, 비시험과목의 한계



5. 학교 노동교육을 어떻게 접근할까?



(3) 사회과에서 노동교육의 강화

- 현행: 중학교 2.2시간, 고등학교 통합사회 2.3시간
- 사회과, 도덕과, '시민교육' 교육과정
- 시민교육의 요소를 강화 시민교육과정 형성
- 그 기초로서 노동인권교육 정규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대응
- Cf. 초기부터 정규교과화, 교육효과의 강화

(4)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와 범교과 목표에 반영

- 노동존중사회와 노동인권교육의 의미
- 범교과 목표체계에 반영: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
-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노동인권에 기반한 참된 민주시민의 육성을 지향
- Cf. 외국의 궁극적 시민교육(노동교육 기초) 지향성

5. 학교 노동교육을 어떻게 접근할까?

(4) 삶으로서의 노동인권

- 노동사회로서 학교
- 노동=시민공동체로 학교의 재구성(학교 코포라티즘?)
- 노동존중평등학교의 구상
- 교사, 학생, 공무원, 공무원의 대표공동체
- 교육노동의 교육적 가치 인정
- 협상과 연대의 삶, 민주주의의 삶, 노동존중의 삶
- 노작 공동체
- 노작의 필수화? 텃밭, 공예, 메이커, 신기술 응용 노작
- 노작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 모의 단체협상과 민주주의의 훈련
- 민주적 권리, 연대, 협상, 사회적 신뢰 등



5. 학교 노동교육을 어떻게 접근할까?

(4) 삶으로서의 노동인권

- 노동사회로서 학교
- 노동=시민공동체로 학교의 재구성(학교 코포라티즘?)
- 노동존중평등학교의 구상
- 교사, 학생, 공무원, 공무원의 대표공동체
- 교육노동의 교육적 가치 인정
- 협상과 연대의 삶, 민주주의의 삶, 노동존중의 삶
- 노작 공동체
- 노작의 필수화? 텃밭, 공예, 메이커, 신기술 응용 노작
- 노작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 모의 단체협상과 민주주의의 훈련
- 민주적 권리, 연대, 협상, 사회적 신뢰 등



6. 실천을 위한 고려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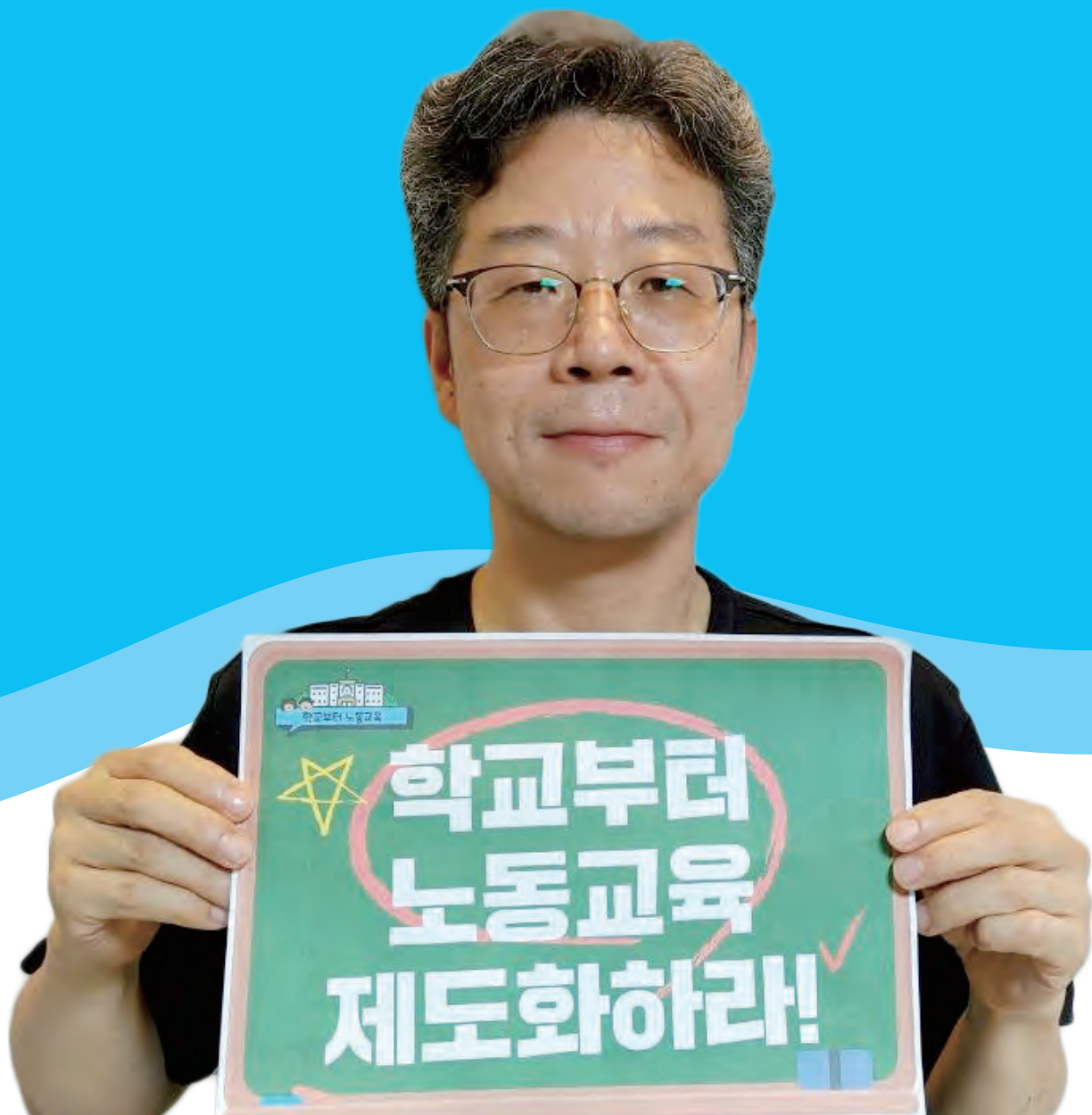


- (1) 정치사회적 기반강화 국회와 사회(대국민), 정치국면 설득력
 - 보수 정치세력의 설득, 정치적-전략적 접근
- (2) 교육(학) 서클과의 대화, 설득 국가교육과정 반영
- (3) 교과서와 정규교과의 채택 토론과 논쟁을 통한 능력의 강화
- (4) 전문적 교육역량의 강화
 - 노동인권교육원/센터: 외부 강사망의 강화, 교원연수
 - 교사의 역량강화: 교원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대학의 노동인권교육
- (5) 노동조합의 시민적 관여력의 강화
 - 보편적 시민적 사회관여 역량
 - 교육역량 강화: 노동인권교육센터와의 연계, 청소년 노동교육원, 청소년 교육캠프

발제 3.

2022 개정 국가교육 과정과 학교에서 노동교육

- 장윤희 이천제일고 교사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과 학교에서 노동교육

장윤호 (이천제일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아마도 “행복”이 아닐까 싶다.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혹시 여행을 갈 때 언제가 행복할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의 기분은 어떤가? 여행에 가서도 즐겁지만, 계획을 짜고 있는 시간도 행복하지는 않은가? 사람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미래 어딘가에 그려놓고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의 행복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지금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할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의 73% 이상이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노동자라고 한다.¹⁾ 노동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삶의 보람과 가치를 높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노동이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하는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일터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갑질을 당하는 사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 심지어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에게 노동하면 생각나는 것을 말하든가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할까? “보람차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까? 아니다.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 어느 누구도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힘들다”, “천하다”, “그런 건 왜 얘기하세요? 전 노동 안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노동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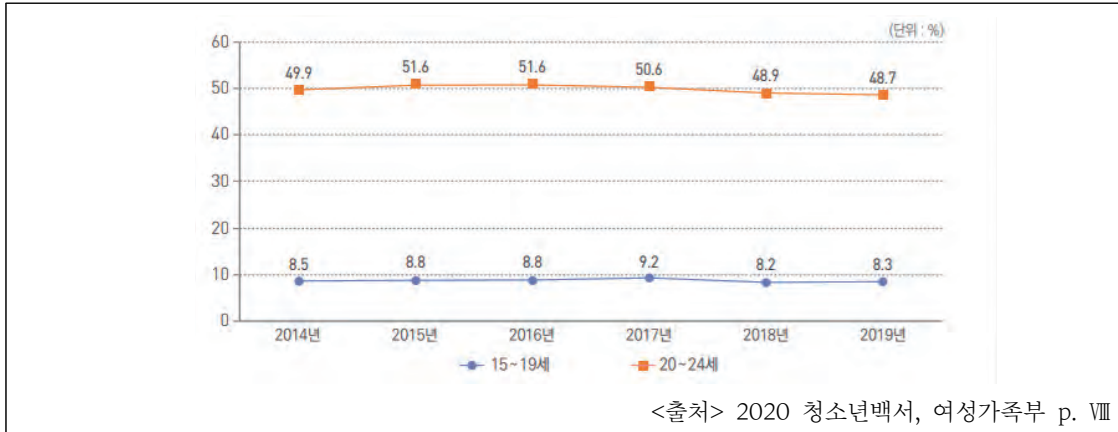
학생들,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학교의 역할이 클 것이다. 학교에서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73% 이상은 노동자이니, 3명 중에 2명 이상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 된다. 우리가, 아니 학교가 노동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1) 통계청 ‘21년 6월 고용동향’ 보고서(21.07.14)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730천명이고, 임금노동자는 20,978천명이라고 한다.

I.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

1. 청소년은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

<그림 1>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9년에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5~19세는 8.3%로 나타났고, 20~24세는 48.7%로 나타났다.²⁾ 적지 않은 비율이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고 쓰고 ‘취업’이라고 읽는다-을 나가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국면과 현장실습에 대한 관심의 하락 등으로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에 49.7%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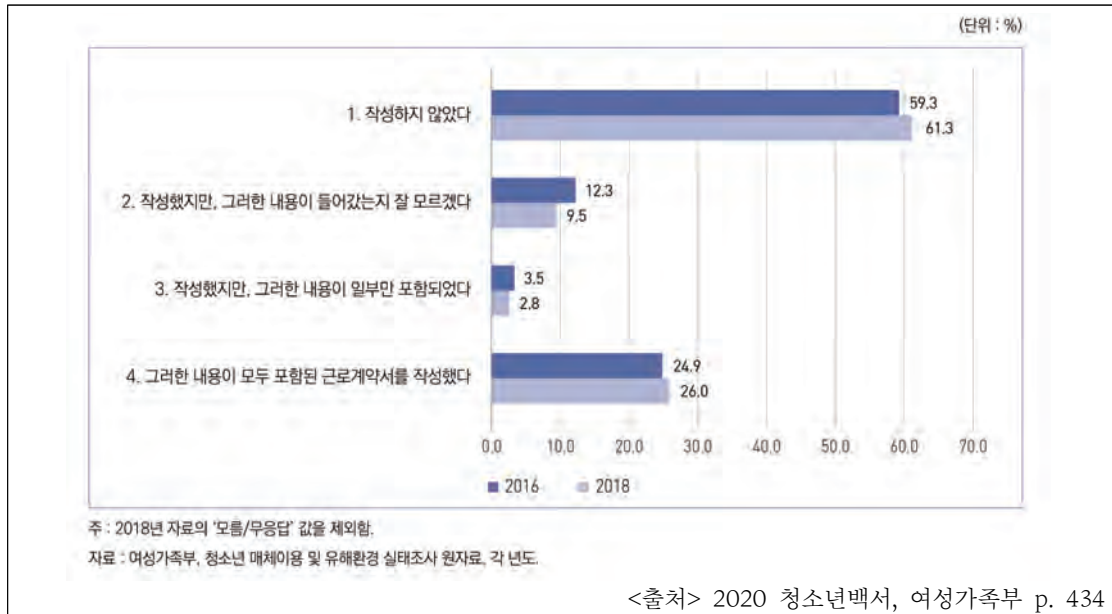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미취업자		입대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89,998	37,372	38,215	17,190	42.5	46.0	24,938	10,151	49.7	24,290	9,676	1,585
특성화고 (직업교육)	79,503	34,246	35,195	15,777	44.3	46.1	20,785	9,245	48.2	21,483	8,905	1,176
마이스터고	5,666	812	297	40	5.2	4.9	3,510	607	70.6	1,417	152	394
일반고 직업반	4,829	2,314	2,723	1,373	56.4	59.3	643	299	30.8	1,390	619	15

<출처> 2020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p. 437~438

2) 2018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의 비율이 15.9%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림 2>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서 보듯이 청소년에 대한 노동의 권리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현황이 이 정도일진대, 다른 사항은 어떨까 싶다.

<그림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이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 향상

1)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로 1년에 2천여 명이 사망하는 사회이다. 산업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법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미 제정된 법은 제정과 동시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을 보며 오래 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노동안전보건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은 적이 있다. 인간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그는 ‘감수성’이라 대답했다. 안전장치와 관리 감독과 구조와 시스템을 제치고, ‘감수성’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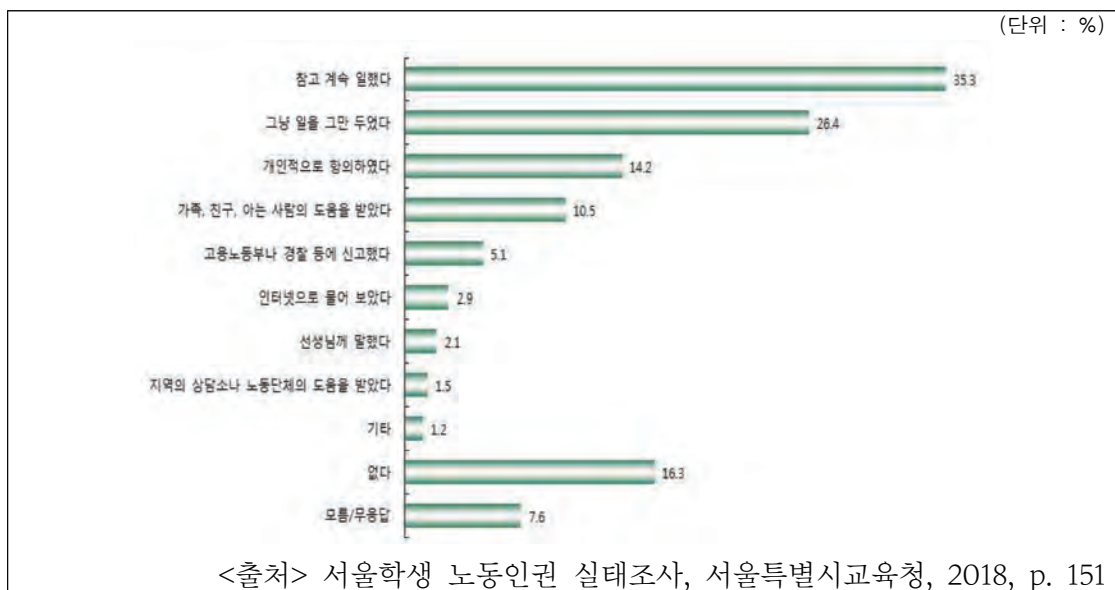
그는 인간이 일하다 죽는 것을 아파하는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대답이 오래 남은 까닭은 죽음을 하찮게 보도록 연습되어진 우

리 삶 때문이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이다.” 『노동자 쓰러지다』 회정

‘감수성’, 노동에 대한 감수성! 이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서 인간은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2) 직장 내의 괴롭힘 방지 및 노동인권 보호

<그림 3> 아르바이트중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행동(학생)



최근 서울대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노동인권에 침해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2018)에서는 아르바이트 도중에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이 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노동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 행동을 살펴보면 <그림 3> 에 서처럼 ‘참고 일을 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고는 한다.

만일 어디에선가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식으로의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 노동은 인간존엄성을 말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에 나오는 기본 원칙이다.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동자를 인력으로, 자원으로 취급해왔다.

노동자를 인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인간으로, 노동력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봐야한다. 노동자는 ‘얼마짜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물질적 존중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지속적인 생활의 보장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정신적 존중은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소속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의 보장이다. 자신의 일에서 통제력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료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노동자 개인과 조직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더 넓은 사회와의 연대감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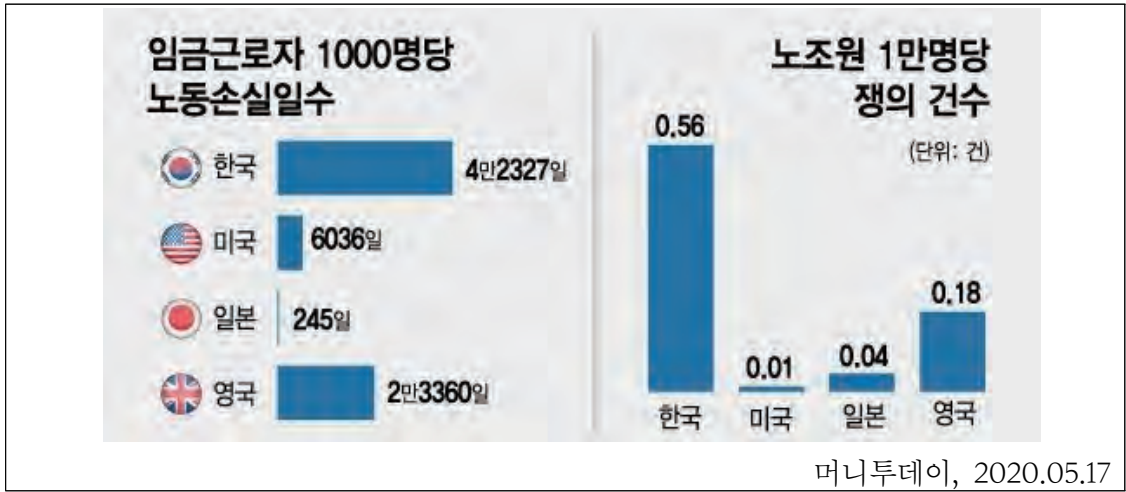
인간의 존엄성은 노동현장에서 자원으로 취급되지 않고, 노동자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2) 사회갈등의 평화적 해결 모색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과 그로 인한 손실이 실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말 위의 그림에서의 수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손실과 쟁의에 대한 책임을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몰아칠 수 있을까?

3) 인권연구소 ‘창’의 인권문헌읽기에서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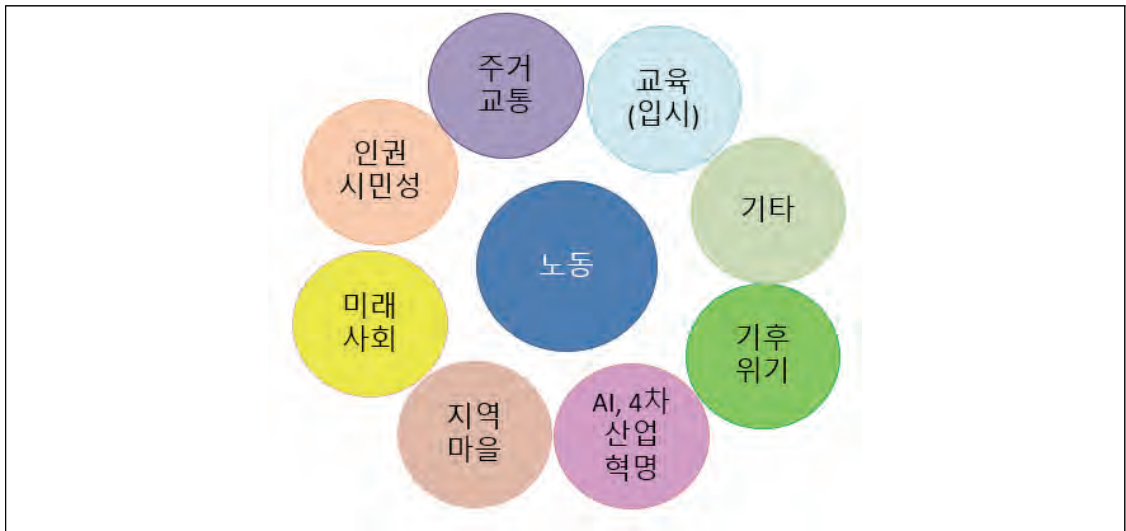
<그림 4> 노동손실일수 및 쟁의건수



노사의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시민 중에 대다수인 노동에 대한 이해를 할 기회가 우리 사회에서는 없다. 노동에 대해서 경영자(사용자)들이 배워본 적이 없다.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서 법과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배워본 적이 없다. 평소에 경영에 대한 정보나 강의는 넘쳐나지만, 노동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노사갈등이 아니라 노사협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노동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3) 사회현상의 바탕에는 노동문제가 바탕이고, 또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5> 노동을 둘러싼 사회



예를 들면, 입시의 문제는 수능에서 정시를 확대할 것인가, 수시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문제이고, 그 밑바닥에는 노동의 문제가 깔려있다. 소위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해야 더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환경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력별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더 좋은 대학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일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인다면,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다면 굳이 대학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싶다.

또한 마을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대공장이 있는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서울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다면 마을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될 것 수 있다. 즉 지역에서의 고용이 늘고 노동환경이 좋아진다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아도 된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4) 노동현장은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다.

촛불집회에서는 쓰지 않았던 가면을 직장의 문제에 대한 항의를 하는 집회에서는 써야만 했다. 우리 사회의 현대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하다. 덕분에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직장이다. 거리에서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비판의 소리도 낼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림 6> 촛불집회와 직장 문제로 인한 집회



하루 24시간 중에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일터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는 노동의 민주주의이다. 결국 노동에서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

주주의 사회를 만든다. 흔히 말하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는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주의이다.

4. 노동교육이 인간의 미래다

1) 사회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하고 있다.

비록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노동 분야에서의 존중은 아직 멀기만 하다. 노동 현장에서의 각종 차별이 해결되지 못하고 일부는 더욱 확대되고 고착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실은 그 명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노동)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정체성이 노동을 통해서 형성되기에 그 개인의 자존감 역시 노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그 인간이 일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할 때, 노동의 존중을 빼고는 성립될 수 없다.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동을 한다. 아니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73% 이상이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그렇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다. 그리고 사용자라 하더라도 노동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특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2)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로봇이 하지 못하는 고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로봇도 하지 않는 허드렛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으로 조직되어 있던 현 사회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미 플랫폼노동은 일상이 되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고, 비대면 노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키오스크와 무인판매점도 더 이상 낫설지 않게 되었다. 어느덧 ‘고용이 곧 선(善)’ 되어서 고용을 얼마나 하였느냐가 정부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노동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노동은 어떤 가치일까? 우리는 변화해가는 노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노동자보다는 건물주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주는커녕 정규직 노동조차도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교육일 것이다.

5. 교육의 이상 실현과 균형적인 시각

1)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의 총론의 실현

우리 교육에서 만들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15 교육과정의 총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을 키우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의 환경과 노동의 권리 보장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시민의식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직장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헌법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민주시민은 노동하는(일을 하는) 시민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배움에서의 균형적인 시각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영에 대해서는 다루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노동 부문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양적으로도 늘리는 것과 내용 측면에서 노동자의 관점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사회과

노동에 대해서 다루는 양이 극히 적고, 노동자의 관점이 없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어느 수준에서 그리고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

한 내용요소는 다른 교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15가지 역량 내용요소에 대해 5가지의 중학교 사회과 내용요소가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취기준상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은 ‘근로자의 권리, 노동권’ 개념을 사용한 것 외에는 없었다.** 나머지 성취기준은 노동 또는 노동자와 관련된 상위개념 수준에서 내용요소를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내용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중에서

<그림 7> 경제 과목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 합리적 선택 • 비용과 편익, 경제적 유인 •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 •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시장과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공급 • 노동 시장, 금융 시장 • 시장 균형 •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잉여 •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정부 실패
국가와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 한국 경제의 변화 • 국민경제의 순환, 국내 총생산 • 실업, 인플레이션 • 총수요, 총공급 •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세계 시장과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원리 • 무역 정책 • 외환 시장, 환율 • 국제 수지
경제생활과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 • 자산과 부채의 관리 • 재무 계획 수립

2015 교육과정

사회과 중의 하나인 ‘경제’ 교과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림 8> 경제 과목의 성취기준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015 교육과정

나. 특성화고 공통과목 : 성공적인 직업생활⁴⁾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공교과목이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반교과목보다는 자신의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습 집중도가 높은 것(이혜정·박미희·장윤호·김영미(2014), 106~107)을 감안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에서 노동인권을 다루고 있는 정도가 곧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 영역과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각 주체의 노력에 대한 기술이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직업생활을 위해서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나 국가가 시민의 직업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업들도 노동자들에게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는 기업이나 사회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노동자로서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 기업이 정신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전사고의 형태와 원인을 알고 안전 수칙 및 사고형태별 안전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의 개념을 알고 예방 원칙과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생활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통해 기업이 정신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2015 개정 성공적인 직업생활 성취기준

4) 성공적인 직업생활 부분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보고서(진숙경 외, 2020)’ 중의 일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는 노동자의 고용증진을 위해 국가가 노력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제정한다고 하여, 노동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 또는 노동자가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의 하나인 고용을 위한 노력과 노동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이란 단어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대부분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표 2> 각 시도교육청별 노동인권교육 조례 현황

교육청	제목	용어	최초제정시기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노동인권교육	18.01.0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노동인권교육	18.11.1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노동인권교육	20.07.1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노동인권교육	19.06.0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노동인권교육	15.08.1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노동인권교육	19.09.30
경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노동인권교육	19.08.06
강원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노동인권교육	20.03.06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노동인권교육	19.07.1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노동인권교육	16.10.2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노동인권교육	19.11.20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노동인권교육	21.05.06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노동인권교육	20.12.17

대구,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은 조례 미제정, 21.07.16 검색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에서와 같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 영역과 성취기준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성취기준에서 보듯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일 또는 근로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과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일과 직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근로관계법의 종류와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고용서비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성공적인 직업생활 성취기준

셋째, 노동인권에 대한 서술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지 않다 보니, 내용요소나 성취기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가 모호하게 서술되기도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교과서의 서술에도 영향을 끼쳐서 일부 교과서의 내용 중에는 노동이나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덕현 외, 2019).

- 산업재해의 종류를 알고 산업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급격한 사회 변동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생활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통해 윤리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성공적인 직업생활 성취기준

다. 특성화고, 경영금융계열

경영, 금융계열은 과거 상업고등학교로 불리던 학교이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이란 관점에서 교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특성화고 출신들이 지금 바로 경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도 상당 기간은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그중에 일부가 경영자가 되는 것이다. 즉 상당 기간을 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그림 9> 경영, 금융계열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구분	기초 학과	전문 중점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인력 양성 유형(권호)
경영·금융 교과	경영·사무과	실용적인 기업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후쿠 노무 권리 비서 인사 사무 행정	고객상담원 경영지원사무원 총무사무원 비서
	재무·회계과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예산·자금 회계 실무 세무 실무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세무사무원
	유통과		유통 일반 국제 실무 비즈니스 영어	구매 조달 구매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물류 관리 수출입 관리	유통관리사무원 생산 관련 사무원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금융과		금융 일반 보험 일반	장구 사무 금융 상품 세일즈 카드 영업 증권 거래 업무 투표 금융 업무 보험 모집 손해 사정	출납사무원 금융사무원 신용주실원 증권중개인 보험실제사 보험사무원
	판매과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고객 권리 전자 상거래 실무 매장 판매 방문 판매	전화고객상담원 매장판매원 방문판매원 인터넷판매원

2015 교육과정

또한 경영의 핵심은 인간이다. 따라서 노동자를 자원으로서는만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예비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림 10> 노무관리 과목의 내용 체계

내용 영역(능력단위)	내용 영역 요소(능력단위 요소)
단체 협약 이행 (0202020205_13v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규칙 개정하기 • 협약 내용 적용하기 • 개정 사항 설명하기
노사 협의회 운영 (0202020207_13v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협의회 설치하기 • 노사 협의회 운영하기 • 노사 협의회 사후 관리하기
위원회 운영 (0202020208_13v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하기 • 위원회 운영하기 • 사후 관리하기

2015 교육과정

라. 노동교육 기회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표 3>에서 보듯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조례를 제정하여서 노동인권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성화고는 전국에 골고루 있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지역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졸업생들은 언젠가는 취업을 하고,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 노동인권교육조례는 전국에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교육의 기회를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다.

<표 3> 각 시도교육청별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역	목적	노동인권교육 정의	대상/수업시수
서울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일반고중 직업교육, / 학기당 2시간이상
부산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	일반고 중 직업교육,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 학기당 2시간이상
인천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일반고중 직업 교육, / 연 2시간이상
광주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교육	모든 학생 / -
대전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	-

지역	목적	노동인권교육 정의	대상/수업시수
세종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	중·고생 / -
경기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	중학생, 고등학생, / 연 2시간
강원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	중·고등학교 / -
충북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 / -
전남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	노동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	-
제주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	중고생 / -
경남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일반고중 직업교육, 고등기술 학교, /연 2시간 이상
울산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	노동인권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	-

대구,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은 조례 미제정, 21.07.16 검색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내용과 대상 및 수업 시간 등이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 이는 각 시도의 학생들이 받는 노동교육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주로 하는 노동권리를 중심으로만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노동권리와 노동의 가치, 노동과 사회 등을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지역은 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교육을 받지만, 어느 지역 출신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어느 지역은 노동교육이 조례에만 존재하고 실제 교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 노동교육 내용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II. 노동교육과 국가교육과정⁵⁾

1. 노동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국가교육과정 총론 분석

교육과정은 지향해야 할 명확한 가치로부터 시작되며,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원칙이자 근간으로 하는 활동이다(Kelly, 2009).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는 해방을 기점으로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와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로 진행되어 왔다. 그 후 2003년에 수시개정 체제를 도입한 후, 개정연도를 붙여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루어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이 깊은, 고등학교 경제과목에 나타난 노동교육 내용변천에 대한 김현진(2018)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과정 시기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의 기조나 노동계와의 관계설정이 경제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주제 영역의 해석과 대체로 일치함을 보였으며, 노동교육의 내용요소의 추이 또한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정부의 노동기조는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쳐 정권의 교육과정 통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정권의 경제 및 노동 기조와 교육과정 개정 시기

대통령	이승만 (1948-60)	윤보선	박정희 (1963-71)	박정희 (1972-79)	전두환 (1980-88)	노태우 (88-93)	김영삼 (93-98)	김대중 (98-03)	노무현 (03-08)	이명박 (08-13)	박근혜 (13-17)	
종합	노정관계 모색 (1945~1961)		노동통제와 동원 (1961~72)		형식적 협의 (1972~1987)		노동의 시장 지배 강화 (1988-2007)			노동통제로 인한 노사갈등 심화 (2008-2016)		
노정관계	노정관계의 정초 모색		통제와 동원 및 저항			노정관계의 전환과 새로운 모색			노정 갈등의 심화			
노동기조	수혜적 포섭과 약탈적 후원		노동의 경제적 동원과 정치적 탈동원화(배제)			형식적 협의와 배제		노동의 유연화와 시장의 지배 강화		노사선진화와 노동통제		
교육과정기	교육 긴급 조치 (1945)	교수 요목기 (1946)	제1차 (1954)	제2차 (1963)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8)	2007 개정 (2007)	2009 개정 (2009)	2015 개정 (2015)

5) 본 단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보고서(진숙경 외, 2020)’ 중에서 발췌하였으며, 본 발제자는 해당 연구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추구해나가야 할 교육비전으로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왔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이란 교육을 통해서 지향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기르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과 자질, 능력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김영주, 2009). 시기별 추구하는 인간상은 <표 5>와 같다.

<표 5> 국가 교육과정 시기별 추구하는 인간상

구분	인간상	비고
제1차 교육과정	◦ 별도의 교육적 인간상 미제시 -교육법 제2조 「교육의 목적」에 따름	◦ 교육법 제2조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제2차 교육과정	◦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 국가와 거래의 이상과 현실을 명철히 이행하는 인간 - 국민 각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의 강조 * 역사적 사명이 '반공, 가난극복' 등으로 표현
제3차 교육과정	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 ①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②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나. 인간 교육의 강화 ① 가치관 교육의 강화 ②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③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 다.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① 기본 능력의 배양 ② 기본 개념의 파악 ③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④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	◦ 자아실현, 국가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 도덕 교과 신설
제4차 교육과정	◦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 육성 ①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②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④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사람 ⑤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전인 교육의 강화 -진로 교육의 충실화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제5차 교육과정	①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②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③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④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기초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
제6차 교육과정	① 건강한 사람 ② 자주적인 사람 ③ 창의적인 사람 ④ 도덕적인 사람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 육성

구분	인간상	비고
제7차 교육과정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2007 개정 교육과정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을 전적으로 승계, 유지함
2009 개정 교육과정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2015 개정 교육과정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인간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제시 가. 자기관리 역량 나.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심미적 감성 역량 마. 의사소통 역량 바. 공동체 역량

2) 범교과 학습 주제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이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중 학교와 교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20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는 “범교과 학습은 사회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가·사회적 요구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6) 제4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 | | |
|--------------|-----------------------|
| ① 건전한 심신의 육성 | ③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
| ㉠ 건강한 신체 | ㉠ 주체적인 자아의식 |
| ㉡ 풍부한 정서 | ㉡ 정직성과 성실성 |
| ㉢ 고상한 취미 | ㉢ 자율성과 책임감 |
| ㉣ 강인한 의지 | ㉣ 공정성과 질서 의식 |
| ㉤ 심미적인 태도 | ㉤ 인간 존중 태도 |
| ② 지력과 기술의 배양 | ④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 ㉠ 기본 학습 능력 | ㉠ 사회적 연대 의식 |
| ㉡ 과학적 탐구 능력 | ㉡ 민주·복지·정의 사회 건설의 사명감 |
| ㉢ 기초 지식과 기술 | ㉢ 투철한 국가 의식 |
| ㉣ 문제 해결력 | ㉣ 민족 문화 창달 의욕 |
| ㉤ 진로 개척의 능력 | ㉤ 인류 공영 의식 |
| ㉠ 문제 해결력 | ㉠ 민족 문화 창달 의욕 |
| ㉡ 진로 개척의 능력 | ㉡ 인류 공영 의식 |

위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으로, 단일교과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교과에 걸쳐 교수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이미숙 최홍원 박상철, 2009: 29-34).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에 나타난 범교과 학습주제의 내용과 주제의 수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범교과 학습주제의 변천

시기	범교과 학습주제 용어 미사용				범교과 학습주제 용어 사용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8)	2007 개정 (2007)	2009 개정 (2009)	2015 개정 (2015)
주 제 명	도덕 교육	(초)도덕, 국민 정신 (중,고) 국민정신교육	국민정신 교육	도덕 교육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인성교육	인성교육	인성 교육
		(초) 환경 교육 (중) 환경오염, (고) 자연보존, 공해	환경 교육	환경 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에너지교육	에너지교육	에너지교육	
			경제 교육	경제 교육	경제교육	경제교육	경제교육	경제·금융 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	
					보건교육	보건교육	보건교육	
	(초,중) 보건 위생	(중,고) 보건 위생	성 교육	성교육	성교육	성교육	성교육	
	(초,중) 건강 증진	(초) 건강과 안전 (중,고) 건강 증진, 체력 향상 및 안전	안전 교육	보건·안전 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건강 교육
	(초,중) 체력 향상							
	(초,중) 안전 교육							
			통일안보 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교육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한국문화정체 성교육	한국문화정체 성교육	
					국제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근로정신함 양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근로정신함양 교육		
		(고)해양 교육		해양교육	해양교육	해양교육		
				정보 및 정보윤리교육	정보 및 정보윤리교육	정보 및 정보윤리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 교육	
				고령화사회 교육	고령화사회 교육	고령화사회 교육		
				물 보호 교육	물 보호 교육	물 보호 교육		
	(중,고) 인구 문제	인구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장애인 이해	장애인 이해		

시기	범교과 학습주제 용어 미사용				범교과 학습주제 용어 사용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8)	2007 개정 (2007)	2009 개정 (2009)	2015 개정 (2015)
						교육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여가활용 교육	여가활용 교육	
		(중.고) 준법 정신				호국 보훈 교육	호국 보훈 교육	
		(중.고) 공동체 의식				호도·경로·전 통 윤리 교육	호도·경로·전 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초.중) 언어 생활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교육	논술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독서 교육	
							독도 교육	독도 교육
합계					16개	35개	39개	10개

노동인권과 관련된 범교과 학습주제는 <표 7>과 같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 범교과 학습주제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념이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각 교육과정기별로 사용한 주제명이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에 대한 해설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제의 내용과 의도는 교육과정 개정의 사회적 상황과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 의존하여 맥락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7> 범교과 학습주제 중 노동인권과 관련된 주제

범교과 학습주제 용어 미사용				범교과 학습주제 용어 사용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8)	2007 개정 (2007)	2009 개정 (2009)	2015 개정 (2015)
도덕 교육	(초)도덕, 국민 정신 (중,고) 국민정신 교육	국민정신 교육	도덕 교육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
		경제 교육	경제 교육	경제교육	경제교육	경제교육	경제·금융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 교육
		안전 교육	보건·안전 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 교육	진로교육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교육	
					여가활용 교육	여가활용 교육	

직접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인권교육’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2015)에서 처음으로 범교과 학습주제의 내용요소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해설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양성평등·노동인권 존중 등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라고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인권교육’의 범주 안에서 하나의 내용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어,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교육실천의 의지가 없다면 실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 중 노동 관련 주제의 내용요소

통합주제명	관련 내용 요소
진로교육	진로탐색, 창업(기업가) 정신, 근로자, 여가활용
민주시민교육	자유와 평등, 청렴·반부패, 법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양성평등 등), 폭력예방(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노동인권
경제·금융교육	경제·금융,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복지와 세금, 지적 재산권

*출처: 교육부(2015a: 8)과 교육부(2015b, 26) 자료를 재구성

3) 진로·직업교육과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이란 표현은 제7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까지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MB노믹스’(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를 추진하며 국정과제로 ‘마이스터고’를 도입하는 등, 전문 직업교육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준 요인이다.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1차 교육과정 때 특별활동에 해당되는 항목 중, ‘직업준비 및 이용후생에 관한 것’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개 영역 중 하나로 실시되는 ‘진로활동’은 모든 학교급에서 시행되는 진로교육이다. 물론 중학교 이상 선택과목으로 ‘진로교육’이 있으나, 이는 모든 학교급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실시되는 진로활동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 및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것이 권장된다.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급별 중점을 두는 내용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데 중점을, 중학교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 탐색하는 데에,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표 9> 진로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자기이해 활동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점 증진활동 - 자아 정체성 탐구, 자아 존중감 증진 등 자기특성이해활동 - 직업 흥미 탐색, 직업적성탐색 등
진로탐색 활동	일과 직업의 가치, 직업세계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체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직업이해활동 - 일과 직업의 역할과 중요성 및 다양성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직업 가치관 확립 등 진로정보탐색활동 - 교육 정보 탐색, 진학 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등 진로체험활동 - 직업인 인터뷰, 직업인 초청 강연, 산업체 방문, 직업 체험관 방문, 인턴, 직업 체험 등
진로설계 활동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활동 - 진로 상담, 진로 의사 결정, 학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등 준비활동 - 일상 생활 관리, 진로 목표 설정, 진로 실천 계획 수립, 학업 관리, 구직 활동 등

출처: 교육부, 2015c

진로와 직업은 모두 노동인권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주제 영역이다. 2015년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의하면,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

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 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때 진로정보 제공에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에서는 ‘적성 찾기, 꿈 찾기, 직업 안내, 취업 정보 제공 등’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자 시민으로서 사회변혁적 역할 등은 교육되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이 구체적으로 ‘노동하는 시민’의 삶과 연계되어 있음을 짚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진로직업교육은 ‘장래의 특정한 일에 대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관점이 강하다. 위에서 서술한 대로 진로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인권교육이 함께 다뤄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흡한 편이다(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17).

2.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안)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인간존엄, 노동존중 철학’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에서 노동을 소재로 활용하고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재량권,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촘촘한 구조의 국가교육과정은 큰 틀의 접근방법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국가교육과정 대강화, 교육과정 편성의 분권화가 주요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으로 잡혀야 한다.

이에 근거해 2022 교육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교육 강화를 주요한 시대적 과제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의 탄생들은 노동에 대한 재개념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의 노동법 등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역량 중심의 노동교육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 방식의 노동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입장에 대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사회와 도덕, 국어, 역사를 비롯해 음악과 미술, 체육 등에 이르기까지 교과 내용에 노동인권적 내용 요소들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급별 노동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에 대한 교육으로 인간의 노동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주어진 범교과학습 주제 중 ‘노동’ 주제를 인권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시민권적 측면에서 노동권이 가지는 위상을 고려할 때 노동에 대한 위상을 보다 강화하여 다양한 교과와의 수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 개념이 제거된 현재의 진로교육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현실에 기반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노동 시장에 대한 사회 환경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 조건 및 노동 생활’에 대한 교육 시행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산업과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진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1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

구분		2022 개정 방향	
교육과정 개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존엄, 노동존중 철학 반영 • 국가교육과정 대강화, 교육과정 편성의 분권화 	
총론	공통 사항	노동인권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 재개념화 교육 • 역량 중심의 노동인권교육 기획 •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 방식의 노동인권교육 강화 • 교과 내용에 노동인권적 요소 반영 • 학교 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
		인문학적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 교육으로 인간 노동에 대한 관점 정립
		범교과학습 주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교과 학습주제 중 ‘노동’ 주제의 위상 강화
		진로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시장에 대한 사회환경 정보’ 제공 • ‘노동 조건 및 노동 생활’에 대한 교육 시행 • 지역의 산업 및 노동현실 반영한 진로교육 강화
		중등직업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근거한 직업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보완 필요 • 평생교육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 노동교육 제시 • 노동인권 관점에서 산업안전교육 강화
각론	학교 급별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통합형 노동인권교육 프로젝트 학습 기획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에서 노동인권교육 강화 • 교과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관점 반영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연계 일반계고 ‘(가칭)노동인권’ 선택 교과 개설 • 직업계고 ‘(가칭)노동인권’ 필수 교과로 개설

중등직업교육의 개선도 중요한데, 현재 직업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고도화되는 산업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 노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노동인권적 관점에서 산업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별로 체계적인 학습 목표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통합형 노동인권교육 프로젝트 학습이 기획되어야 하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과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고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가칭) 노동인권’ 선택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야 하고, 직업계고의 경우는 ‘(가칭) 노동인권’을 필수 교과로 개설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철학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교육과정에 ‘노동’ 용어의 부재로 인한 학습 공백

국가교육과정에서 ‘노동’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동교육과 가장 밀접한 교과라 할 수 있는 사회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은 ‘노동권, 노동자’라는 용어에서만 드러날 뿐, 노동 그 자체의 의미나 가치를 탐구할 기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행위로 여겨진다. 노동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만족을 느끼는 개인적인 차원이자, 그 행위를 통하여 자연 혹은 주변과 소통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뻗어 나가는 공유와 네트워크라는 인간 고유의 활동이자 생활이다(고미숙, 2018). 따라서 추상적인 ‘일’의 개념에 더하여 현실이라는 구체성을 부여하는 ‘노동’ 개념을 활용하여 주체적인 인간 행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급격한 사회 변화도 인간 고유의 차원이자 생활로서의 노동 개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도 노동의 본래적 의미를 담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살려 수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문서에 용어에 ‘노동’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다. 현재 ‘진로·직업·근로·일’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용어들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노동자 시민’의 관점 포함 필요

노동교육은 결국 ‘노동자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특정 교과의 교육내용으로 한정되기보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초·중등 교육의 공통적인 목적인 ‘민주시민 양성’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목적을 구체화한 인간상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교육부, 2015a: 1)이 제시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핵심역량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표 11>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p>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p> <p>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p> <p>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p> <p>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p> <p>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p> <p>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p>

교육부(2018)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노동교육은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과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교육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노동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는 노동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미래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역량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노동현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 역시 노동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고등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마지막으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직업계고는 현장실습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은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일상을 경험한다. 여타 학교의 교육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띠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노동교육’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줄 수 있는 별도의 ‘필수교과’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노동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기능을 담고 있는 노동 관련한 주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금구성이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상과 같은 문제들을 다양한 사례 및 법과 판례 등을 통해, 현실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사고하고 실천처럼 연습해보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근면성실한 노동자 관점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노동하는 시민의 삶과 일상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내용 제시가 요구된다.

직업계고를 제외한 일반고와 기타형태의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목표이다. 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노동자로 고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노동교육은 필요하다. 당연히 필수교과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아직 사회환경이 허락치 않는다면 고교학점제와 연동하여서 선택교과로 설치해보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4) 범교과 학습 영역에서의 노동교육

중학교 이하 학교급에서 교육과정 총론 ‘범교과 학습 영역’으로 ‘노동교육’을 위치시키고, 이를 각 교과 교육과정에 그 목표와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은 미래 사회변화를 전망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습내용이자, 여러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통합적인 학습 주제다. 2016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 존중’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특히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우리 사회 노동문제의 키워드는 ‘노동존중’이라는 어휘로 수렴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국민적·사회적 요구로서, 교육과정에 ‘노동’이 담겨야 하는 당위성을 마련해주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10개의 범교과 학습 영역 중에서 노동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며,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노동교육이 ‘인권교육’에 속한 하나의 내용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영역조차 교과 교육과정에 유기적·통합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볼 때,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 담긴 내용요소가 각 교과에 충분히 녹아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 같다. 게다가 ‘교육과정 총론 해설’은 원전인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해·적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교육과정 문서처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을 재정비함과 함께, 노동교육을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5) 진로·직업 교육에 노동교육 반영 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해 온 진로·직업교육에서는 ‘노동 현실의 문제’는 외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진로·직업교육은 ‘장래의 특정한 일에 대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관점이 강하다(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17). 진로와 직업은 모두 노동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주제 영역이다. 2015년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의하면 진로교육은 '진로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동'하는 활동이며, 이때 진로정보 제공에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에서는 '적성 찾기, 꿈 찾기, 직업 안내, 취업 정보 제공 등'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자 시민으로서 사회변혁적 역할 등은 교육되지 않고 있다. 진로·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과정에서 진로·직업교육이 구체적으로 '노동하는 시민'의 삶과 연계되어 구성될 때 가능하다.

3. 노동을 반영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1)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중심 노동교육

가. 민주시민과 노동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컸고, 노동과 시민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빈곤했다.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노동자도 많으며, 심지어 파업이 일어난 경우에도 파업노동자를 일상에 불편과 불안을 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시민과 노동자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전문교과가 개설되면서,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공통 교과로 만들어졌으나, 노동교육의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노동의 가치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노동과 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철학적 논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고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더 이상 기존의 노동자 범주로는 변화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흐름 속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나 자본가라 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사용자가 되기도 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품을 수 없다.

누구나 '노동하는 민주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과 인식을 돌아보게 되면, 노동의 사회적 여건과 노동자의 문제는 특정인의 문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이 부각되게 된다. 이는 노동을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인 의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설규주 외, 2019: 158-159).

첫째, 시민과 노동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시민적 관점에서 노동교육은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사람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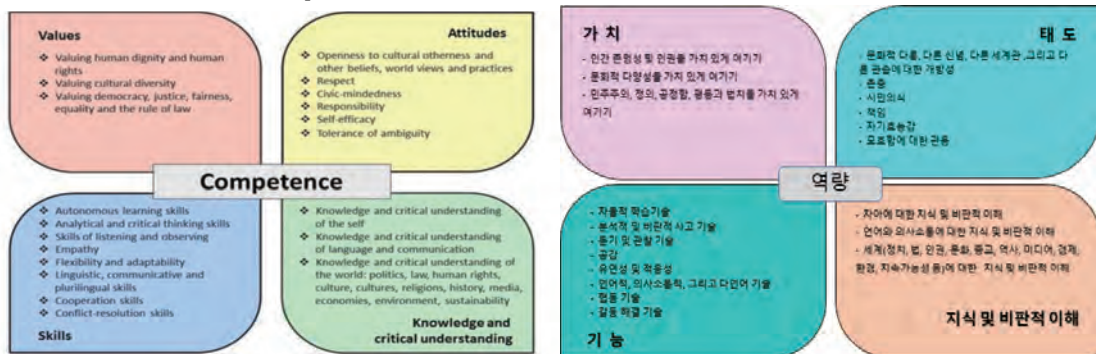
둘째, 노동과 관련하여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도울 수 있다. 노동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 사회 제도, 그리고 노동하는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교육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사분규, 부당노동행위, 파업, 직장폐쇄,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고용승계 문제 등 다수의 노동문제가 발생한다.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존재인 동시에 타인, 즉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과 직결되는 문제는 물론이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이익과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게 노동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구성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감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노동자에 대한 기존 시각의 노동교육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노동자와 함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노동교육을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역량중심의 노동교육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포괄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내용과의 합치성 및 타당성에 근거한 개념과 하위요소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2018)가 제시한 CDC 모형, 즉 ‘Competences for Democratic Culture’ 모형⁷⁾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수준과의 연결을 통해 민주시민성의 측면과 이에 연결될 수 있는 노동교육의 실행이 가능한 접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면 현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의 내용요소와 기능 부분 설정의 취지를 상당 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노동교육 개념 및 하위요소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7)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2018)가 제시한 CDC 모형은 다음과 같은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교육에 대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역량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국가교육과정을 구성한 뉴질랜드와 덴마크의 교육과정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뉴질랜드와 덴마크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 비해 성취기준의 개수가 적고 각 성취기준의 일반화 수준이 높아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학습내용과 대상을 선정하고 구성하는데 재량권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또한 ‘평생 학습하는 시민’,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삶’이라는 철학이 교육비전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 후 자신의 삶에서 계속 학습하고 성장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은 시민으로서의 삶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역량 중심으로 목표와 역량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요구분석 조사를 델파이조사로 실시하여 노동교육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내용구성 방향 및 학교급간 중복과 연계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의 교육이 역량중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지식과 개념 중심의 주제별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역량의 틀에 근거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표 12> 역량중심 노동인권교육 영역 및 내용 요소

영역	내용요소
지식 및 비판적 이해	노동에 대한 지식 및 비판적 이해
	노동자를 둘러싼 현실문제 및 권리 인식
	노동 문제 해결 방안 탐색
기능	연대/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참여 및 실천 능력
가치 및 태도	노동 존중
	다양성 존중
	노동인권 지향 태도

노동교육의 역량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식 및 비판적 이해’, ‘기능’, ‘가치 및 태도’ 영역이다. 지식 및 비판적 이해는 구체적인 내용요소로서 노동에 대한 지식 및 비판적 이해, 노동자를 둘러싼 현실 문제 및 권리 인식, 노동 문제 해결방안 탐색 등 3가지로 다시 구분되고, 기능은 연대/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참여 및 실천 능력 등 5개 내용요소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가치 및 태도 영역은 노동 존중, 다양성 존중, 노동인권 지향 태도 등 3가지로 지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발전(안)

노동교육 역량과 및 내용요소에 따라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실과·도덕과·통합교과를 중심으로,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내용요소 및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별 기능을 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3> 역량중심 노동인권교육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체계 관련성

노동인권교육 역량	내용요소	초등학교 내용요소 및 관련 성취기준	초등학교 교과별 기능
지식 및 비판적 이해	노동에 대한 지식 및 비판적 이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6사02-01] ·인권, 헌법, 기본권과 의무 [6사02-03]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 (인권존중) [6도03-01] ·일과 직업의 세계 [6실05-01]	[사회] 조사하기, 분석하기, 해석하기, 참여하기 [도덕]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실과] ·탐색하기 ·실천하기 ·조사하기 ·추론하기
	노동자를 둘러싼 현실문제 및 권리 인식	·인권, 헌법, 기본권과 의무 [6사02-03]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의 문제 및 과제 [6사06-04]	[사회] 인식하기, 조사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적용하기, 활용하기, 해석하기, 역사적 사실 탐구하기, 시대적 배경 이해하기, 추론하기
	노동 문제 해결 방안 탐색	·법, 법의 역할[6사02-06]	[사회] 조사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추론하기, 적용하기, 해석하기
기능	연대/협동 능력	·함께하면 무엇이 좋을까?(협동) [4도02-04]	[도덕] ◦공동체의식 ·관점 채택하기 ·공익에 기여하기 ·봉사하기
	비판적 사고 능력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의 문제 및 과제 [6사06-04]	[사회] 조사하기, 분석하기, 추론하기, 평가하기, 토론하기, 비평하기, 비교하기
	공감 능력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공감, 존중) [6도02-02]	[도덕]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민감성 갖기 ·공감 능력 기르기 ·다양성 수용하기
	의사소통 능력	·생활 속의 민주주의 [6사05-04]	[사회] 공감하기, 의사소통하기 [도덕] ◦도덕적 대인관계능력 ·경청·도덕적 대화하기 ·타인 입장 이해·인정하기
	참여 및 실천 능력	·생활 속의 민주주의 [6사05-03] ·가정일의 분담과 실천 [6실03-06]	[사회] 참여하기 [실과] ·탐색하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평가하기
가치 및 태도	노동 존중	·일의 소중함 [2바05-02] ·일과 직업의 세계 [6실05-01] ·경제주체의 역할 [6사06-01]	[바른 생활] 내면화하기, 관계 맺기 [실과] ·탐색하기 ·실천하기 ·조사하기 ·추론하기 [사회] 조사하기, 존중하기
	다양성 존중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2슬05-04] ·타문화 존중 [4사04-06] ·일과 직업의 세계 [6실05-01]	[슬기로운 생활] 관찰하기, 조사하기 [사회] 조사하기, 비교하기, 존중하기, 분석하기, 비평하기, 참여하기 [실과] ·탐색하기 ·실천하기 ·조사하기 ·추론하기
	노동인권 지향 태도	·직업 놀이 [2즐05-03] ·가정일의 분담과 실천 [6실03-06]	[즐거운 생활] 놀이하기 [실과] ·탐색하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평가하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처: 교육부, 2015

또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영역, 성취기준을 담은 교육과정안을 새롭게 기획하였다.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형태가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교과통합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기획하는 것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배움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를 지정하지 않은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14> 초등학교 노동인권교육 목표(안)와 영역, 성취기준안

초등학교 노동인권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이해한다.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를 알고,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사람들을 조사한다. ○ 노동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일을 완수하는 경험을 통하여 일의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학년군	역량 영역	성취기준
1~2학년	지식과 비판적 이해 기능 가치태도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절을 통해 노동과 휴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고, 일상에서 노동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예절을 알고 실천한다. • 학교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
3~4학년	지식과 비판적 이해 기능 가치태도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들을 돕는 여러 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한다. • 노동의 필요성을 알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 학교에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여 과업을 완료한다.
5~6학년	지식과 비판적 이해 기능 가치태도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알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에 대해 이해한다. • 우리사회에서 노동과 관련된 문제(아동노동, 감정노동, 가사노동,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를 찾아본다. •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자의 삶을 지향한다. • 학교에서 일을 기획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조율한다.

새롭게 제안하는 초등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은 ‘노동의 가치, 노동과 역사, 노동과 사회, 실제’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특히 ‘실제’라는 영역의 독특함을 차기 교육과정에 제안하고자 한다. 노동인권교육의 ‘실제’ 영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습과제 도전과 그 해결과정이 성인이 일하는 과정, 즉 노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마련되었다. 노동은 우리 삶에서 매우 가까운 행위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성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관점이 있다. 노동인권교육에서 ‘실제’ 영역을 제안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지는 경험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하도록 돕고 더불어 노동을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친근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2) 중학교(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역량중심 노동인권교육 개선·발전(안)

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성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 직접적인 성취기준은 물론 간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에서 양적확장을 추구해보고자 하였다. 보다 직접적으로 ‘노동’의 여러 측면을 수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성취기준을 노동인권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해 명시적인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그 필요성 및 이유를 제시해보았다.

<표 15>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재구성

기존 성취기준	성취기준 재구성	필요성 및 이유
[9사(지리)08-02]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가면서 관찰되는 경관과 지가의 변화를 분석한다.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가면서 변화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모습과 배경을 분석한다.	이 성취기준에서는 중간 지역의 특징, 공장이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에 따른 생활상의 모습과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노동의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9사(일사)01-01]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한다.	사회화 과정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회화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특징을 시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사회화’의 의미가 가리키는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직장에서의 사회화의 경우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직장도 노동자가 사람으로서 가치를 대우받을 수 있는 공간임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직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자아정체성’ 개념을 제시할 때도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을 비교하지만 여기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봄에 있어서 직업, 노동적 측면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9사(일사)01-03] 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집단의 모습을 살펴보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를 다양한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한다.	‘사회집단’의 의미에서 이익을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공익)을 고려하는 모습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에서도 성, 노동, 인종 등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대중매체가 노동을 다루는 양상을 분석하고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미디어(언론, 영화, 만화 등)가 노동을 다루는 모습을 미디어리터러시 측면에서 어떻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분 짓고 있는지 성취기준으로 제시된다면 노동인권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현행 성취기준들 중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맥락을 가지고 제작된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수정·보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틀을 유지한 채 교과특성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 시행을 위해 교사 수준에서 실시해볼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수정해본 것이다.

제시된 성취기준 중에서 [9사(지리)08-02]는 사회과 내용요소 중 지리 영역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유도해낼 수 있다. 도시화로 인한 사회현상에서 노동자의 생활모습이 어떤 양상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야기한 것들 속에서 역사적 차원의 노동자의 생활상을 담아낼 수 있

다. [9사(일사)01-01]에서 [9사(일사)01-03]은 ‘사회화’ 개념을 노동인권교육과 연결시켜 본 것이다. 직장에서 인간은 재사회화를 경험한다고 제시되는데, ‘직장’ 공간을 노동현장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지위, 역할’을 추출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핵심개념으로 등장하는 ‘역할 갈등’을 구체화하여 노동자라는 단일한 지위가 아닌 노동자·소비자·사용자라는 다중지위 속에서의 인간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재구성된 성취기준은 수업 현장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 역량중심 노동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정 시 고려사항

위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역량중심의 노동교육을 위한 성취기준의 방향과 성취기준 수준에서 제시해볼 수 있는 수정안은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인권교육이 자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역량중심 노동교육을 위해 성취기준을 개정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취기준 내용요소에 있어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인권’은 인권 영역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상황의 구체성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 의식의 개선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적 보호방안,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성취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하는 개념은 ‘노동인권감수성’이다. 이것은 ‘지식 및 비판적 이해,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역량 영역에서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감수성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각각의 성취기준이 노동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노동과 관련한 사회현상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역량 영역에 있어서도 현행 사회과는 지식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으며, 사고기능과 관련된 술어 위주로 성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기능·가치·태도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을 제시해야 총체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삶 자체가 노동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삶(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맺음)에 대한 성취기준도 필요하다. 학생들을 예비노동자로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적 관계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역량 제시에서 갈등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관점의 문제로,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시민에게 나타나는 복합적인 지위구성성에 관한 것이다. 여성인권 즉 여성이면서 노동자, 또는 여성이면서 장애인 등 중복적인 약자의 지위를 가질 때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노동인

권 영역에서 배제되는 약자의 모습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이 부수적인 노동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 여성노동 그 자체로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과 관련된 주체적 노동이 아니라 생계에 일부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3) 직업계고 교육과정

가. 전문교과 ‘성공적인 직업생활’ 분석

직업계고 학생들은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도 높고, 특히 교육과정에 의해 현장실습을 나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관점으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전문공통 과목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수강하는 과목이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업기초능력, 일과 산업의 이해, 산업안전, 근로관계, 직업윤리 등을 학습하며,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갖추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31])고 밝히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반교과목보다는 자신의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습 집중도가 높은 것(이혜정·박미희·장운호·김영미(2014), 106~107)을 감안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에서 노동인권을 다루고 있는 정도가 곧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노동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 영역은 일과 직업생활, 근로관계와 산업 안전 등의 영역이며,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영역이 간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표 16>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 체계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일과 직업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직업의 가치 · 직업 생활의 의미 ·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
기업과 산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기업 활동 · 제조업과 제품 생산 활동 ·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 ·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 ·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의 의미
취업과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취업 · 취업 계획 수립과 구직 활동 · 창업과 기업가 정신
근로관계와 산업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와 법 · 고용 서비스와 사회 제도 ·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 협력적인 노사 관계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문제와 직업윤리 · 미래의 직업 사회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체계를 역량중심 노동인권교육 내용요소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역량중심 노동인권교육과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 체계 관련성

노동인권교육 역량	내용요소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 내용요소 및 관련 성취기준
지식 및 비판적 이해	노동에 대한 지식 및 비판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생활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통해 윤리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윤리적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 일과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급격한 사회 변동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자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직업 사회 변화 동향을 탐색할 수 있다. · 미래 사회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직업 생활을 전망할 수 있다. · 근로관계법의 종류와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전사고의 형태와 원인을 알고 안전 수칙 및 사고형태별 안전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 문제 해결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관계에서 권익의 침해와 차별에 대한 시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의 개념을 알고 예방 원칙과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의 종류를 알고 산업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능	연대/협동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의 노사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	
	공감 능력	·
	의사소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 자신의 경력 개발 경로를 수립할 수 있다.
	참여 및 실천 능력	·

노동인권교육 역량	내용요소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 내용요소 및 관련 성취기준
가치 및 태도	노동 존중	• 일과 직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노동 다양성 존중	• 노사 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인권 지향 태도	.

노동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 영역과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각 주체의 노력에 대한 기술이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나 국가가 시민의 직업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도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성공적인 직업 환경 구축도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는 기업이나 사회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개인 노동자의 노력이 강조되는 양상이다.

둘째, 노동이란 단어가 부재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에서 대부분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표현하며 ‘노동’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에서 보듯이 노동이라는 낱말보다는 일 또는 근로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동인권에 대한 서술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시선이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도 기업가도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다 보니 내용요소나 성취기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가 모호하게 서술되기도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교과서의 서술에도 영향을 끼쳐서 일부 교과서의 내용 중에는 노동이나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최덕현 외, 2019).

나. ‘(가칭) 노동인권’ 교과로의 개정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전공교과를 담당하면서 노동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했던 현장교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칭)노동인권’이라는 교과목 개설 시 요구되는 영역과 내용요소를 <표 18>과 같이 작성해보았다. 새로운 교과로 제안하는 ‘(가칭) 노동인권’은 노동의 입장에서,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의 세계와 권리 등을 중심으로 내용요소를 구성하였다.

<표 18> (가칭) 노동인권 교과 내용 영역과 내용요소

영역	내용요소	영역	내용요소	영역	내용요소
I. 노동과 노동 인권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노동 • 노동인권의 의미와 필요 • 노동인권의 발전 	II. 노동과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의 의미 • 노동인권의 보장과 제도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행복할 권리 •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차별 없이 일할 권리 • 권리 침해와 대응 	III. 노사관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조직의 의미와 역할 • 노동조합과 노동3권 • 갈등과 상생의 노사관계 이 해
IV. 인간다운 노 동, 평등한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노동 • 젠더(또는 여성) 노동 • 청소년 노동 • 사회적 약자의 노동 • 직장 민주주의 	V. 노동과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생활 • 고용과 실업 • 노동과 평등 • 노동과 기술 • 노동과 미디어 	VI. 미래사회와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과 복지의 이해 • 노동과 연대 • 미래사회의 노동 형태 변화 • 노동존중사회

Ⅲ. (가칭) 노동인권 교과 개설

1. 독립교과의 필요성 및 노동교육의 필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마지막으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은 노동하는 주체로서 일상을 경험한다. 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노동교육’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줄 수 있는 별도의 ‘필수교과’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성공적인 직업 생활’ 교과가 이런 취지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으나 노동인권교육 역량 요소가 미흡하고, 내용도 부족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나 노동 생활에 관련한 현실적인 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이후 학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 임금구성이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상과 같은 문제들을 다양한 사례 및 법과 판례 등을 통해, 현실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사고하고 실천처럼 연습해보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근면성실한 노동자 관점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노동하는 시민의 삶과 일상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내용 제시가 요구된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는 교육과정 총론 범교과 학습 영역에서 ‘노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며,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노동교육이 ‘인권교육’에 속한 하나의 내용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모두 교육의 목표이지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그 위상이 맞지 않다. 범교과 학습주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 노동존중 사회를 외치는 지금의 국가·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명확한 노동인권 문제를 담은 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중에서

2.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

이미 직업계고에서 선택교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지역 내 특성화고 중에서 5개교(광주전자공고, 전남공고, 동일미래과학고, 광주공고, 광주자연과학고)가 선택교과로 지정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1>과 같이 광주전자공고에서는 생활·교양 교과군으로 편성되어 2학년에 학기당 1시간씩 수업을 편성하였고, <그림 12>에서와 같이 전남공고에서는 전문교과의 고시의 과목으로 1학년 2학기에 2시간씩 편성하였다.

<그림 11> 노동인권교과의 교육과정 편성 사례 1

3. 2021학년도 학과별 교육과정 이수 단위 편성표

2021학년도 전기과 전 학년 교육과정 이수 단위 편성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전기) 과	기준학과 (전기과)	인력양성유형 (전기공사, 전기설비)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2021학년도 입학생)		2학년(2020학년도 입학생)		3학년(2019학년도 입학생)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8	8	2	2	2	2		
		문학	5	4					2	2
	수학	수학	8	6	3	3				
		수학 I	5	4			2	2		
	영어	기본 영어	5	4	2	2				
		영어	8	8			2	2		
		실용 영어	5	2					1	1
한국사	한국사	6	6	3	3					
탐구	사회	통합사회	8	6	3	3				
		생활과 윤리	5	4			2	2		
	과학	통합과학	8	6	3	3				
		물리학 I	5	4			2	2		
체육·예술	체육	체육	5	6	2	2	1	1		
		운동과 건강	5	4					2	2
	예술 (음악/미술)	음악	5	4				2	1	1
미술 창작		5	2			2				
생활·교양	기술·가정/제외국어/한문교양	정보	5	4					2	2
		노동인권	5	2			1	1		
		일본어 I	5	4			2	2		
		중국어 I	5	4			(택 1)	(택 1)		
보통교과 이수단위 소계					18	18	16	16	8	8
전문공통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	2	2	1	1					
	기초 제도	2	4	2	2					

<학교알리미 : 광주전자공고>

<그림 12> 노동인권교과의 교육과정 편성 사례 2

의정	과목 (단)	과목	기수	단위	1학년 (2021학년도 입학생)		2학년 (2020학년도 입학생)		3학년 (2019학년도 입학생)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8	6			2	2	1	1	10
		실용국어	5	4	2	2					
	수학	수학	8	6			2	2	1	1	10
		실용수학	5	4	2	2					
	영어	영어	8	6			2	2	1	1	10
실용영어		5	4	2	2						
한국사	한국사	6	6			2	2	1	1	6	
탐구	사회	통합사회	8	8	1	1	3	3			8
		통합과학	8	8	2	2	2				
	과학	물리학 I	5	4				2	1	1	10
체육·예술	체육	체육	5	4	2	2					10
		운동과 건강	5	6			2	2	1	1	
	예(음악/미술)	음악	5	4	2	2					8
		미술창작	5	4					2	2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정보/교양	정보	5	4	2	2					12
		진로와 직업	5	4	1	1			1	1	
		프로그래밍 I	5	4					2	2	
본과목과 이수단위 소계					16	16	15	15	11	11	84
의정	기초	직업필수교육	2	2	2						2
		기초 제도	2	6	3	3					6
		기계 기초 공작	2	14	7	7					14
		공업 일반	2	4	2	2					4
		기계 일반	2	4			2	2			4
		기계제도	2	14			3	3	4	4	14
의정	고시외기초과목	노동 인권	2	2		2					2
		피복 아르바이트	2								

3. (가칭)노동인권 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안)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가칭)노동인권 교과서는 <표 18>과 같이 노동과 노동인권의 이해, 노동과 권리, 노사관계의 이해,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 노동과 사회, 미래 사회와 노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에 대한 이해 및 각종 권리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노동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 및 공감 능력까지 담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노동과 노동인권의 이해 단원은 노동에 대한 이해와 의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노동의 권리 영역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각종 권리와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노사관계의 이해 영역은 노동자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과 상생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 단원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차별실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대안을 찾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동과 사회 영역에서는 노동을 둘러싼 사회 각 부문이 노동과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와 노동 영역에서는 노동자 또는 시민들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미래사회 노동형태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내용영역요소를 바탕으로 성취기준 예시를 작성하였는데, <표 19>와 같다.

<표 19> (가칭) 노동인권 교과 내용 영역과 성취기준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성취기준
I. 노동과 노동인권의 이해	인간과 노동	[12노동01-01]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파악하고 인간의 삶과 노동에 관해 탐구한다.
		[12노동01-02] • 노동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노동인권의 의미와 필요	[12노동01-03] •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12노동01-04] • 노동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의 법 정신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다.
		[12노동01-05] • 타인의 노동에 대해 공감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
	노동인권의 발전	[12노동01-06] • 인간의 역사 발전에 있어 노동의 역할을 조사하고 중요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2노동01-07] • 세계 및 한국의 역사 속에서 노동인권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노동자가 처한 현재 모습을 파악한다.
		[12노동01-08] • 찰리채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즈>를 보고 (자본주의의) 노동의 의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2노동01-09] • 노동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할 수 있다.
		[12노동01-10] • 현장실습 및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 실태를 이해하고 노동인권의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II. 노동과 권리	노동자의 의미	[12노동02-01] • 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2-02] • 자신의 직업세계와 관련된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이해한다.
	노동인권의 보장과 제도	[12노동02-03]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2-04] • 국제노동기준 및 국제인권규범과 노동인권 보장제도 형성의 역사와 체계를 탐색하고 분류할 수 있다.
		[12노동02-05] • 노동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목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2노동02-06] • 노동계약 체결의 의미를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2노동02-07] • 취업규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이해한다.
	행복할 권리	[12노동02-08] • 임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12노동02-09] • 최저임금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정과정을 이해한다.
		[12노동02-10] • 노동시간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12노동02-11] •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가 노동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건강하고	[12노동02-12] • 건강의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원칙과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성취기준	
III. 노사관계의 이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다.	
		[12노동02-13]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실현에 대해 공감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	
		[12노동02-14] • 노동안전보건 법과 제도의 역사와 쟁점을 탐구한다.	
		[12노동02-15] • 산업재해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차별없이 일할 권리	[12노동02-16] • 장시간 노동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2노동02-17]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 방안에 관해 탐색한다.	
		[12노동02-18] •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인식하여 고 성차별 사례를 분류할 수 있다.	
	권리 침해와 대응	[12노동02-19] •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노동02-20] • 노동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노동자조직의 의미와 역할	[12노동02-21] • 현장실습과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 실천한다.	
		노동조합의 필요성 이해	[12노동03-01] •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12노동03-02] • 노동조합과 기타 노동자 단체·조직과의 차이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12노동03-03] • 노동조합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노동조합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3-04] • 노동권과 경영권의 충돌과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12노동03-05] •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적 보호 조치를 이해한다.			
노동조합과 노동3권		[12노동03-06] • 헌법상 평등권과 헌법상 노동3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3-07] • 노동조합의 노동3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3-08] • 단체교섭과 쟁의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모의 활동을 실시한다.	
갈등과 상생의 노사관계 이해		[12노동03-09] • 노사관계의 개념을 이해한다.	
		[12노동03-10] • 노사관계의 역사와 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3-11] •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동자, 사용자(기업), 정부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IV.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	비정규직 노동	[12노동04-01] • 비정규직 노동이 발생한 배경과 형태와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4-02] • 비정규직 노동이 노동자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12노동04-03] •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젠더(또는 여성) 노동	[12노동04-04] • 성평등의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12노동04-05] • 노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12노동04-06] •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청소년 노동	[12노동04-07] • 청소년 노동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한다.	
		[12노동04-08] • 청소년 노동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사회적 약자의 노동	[12노동04-09] • 감정 노동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고,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12노동04-10] •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고,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성취기준
		찾아본다.
		[12노동04-11] • 사회적 약자의 노동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고,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직장 민주주의	[12노동04-12]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4-13] • 직장 내 권리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V. 노동과 사회	일과 생활	[12노동05-01] •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일과 생활의 변화를 탐구한다.
		[12노동05-02] •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2노동05-03] • 일과 생활의 균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고용과 실업	[12노동05-04] •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실업의 의미를 이해한다.
		[12노동05-05] • 현대사회에서 일자리 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대책에 대해 탐구한다.
	노동과 평등	[12노동05-06]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12노동05-07] • 차별과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이해하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과 차이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노동과 기술	[12노동05-08] • 기술의 발달이 미래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2노동05-09] • 기술의 발달이 노동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노동과 미디어	[12노동05-10] • 미디어의 역할과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2노동05-11] • 미디어에서 노동문제를 다룬 기사와 뉴스를 찾아보고, 기술하는 관점을 탐구하고 그 영향을 탐구한다.
VI. 미래사회와 노동	노동과 복지의 이해	[12노동06-01] • 사회복지와 산업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노동자와 사회에 끼치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6-02] • 사회복지와 산업복지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노동과 연대	[12노동06-03] • 노동자간의 협력과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노동 현장에서 실천할 방안을 탐색한다.
		[12노동06-04] • 세계시장에서의 노동자 간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12노동06-05] • 노동인권 존중 사회를 위해 정부, 기업, 노동자 간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실천한다.
	미래사회의 노동 형태 변화	[12노동06-06] • 미래사회의 노동형태 변화를 예측하고 탐색한다.
		[12노동06-07] • 미래사회에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12노동06-08] • 자신의 노동 가치관을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나의 진로에 적용할 방안을 탐색한다.
	노동존중사회	[12노동06-09] •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핵심 협약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노동06-10] • 미래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4. 독립교과추진 시 Q&A

① 굳이 교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각 교과에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의 수업은 국어로 진행한다. 심지어 외국어도 외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데, 외국어 교과서에서 또는 수업 중에 국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모든 교과에서 국어를 사용하는데 굳이 ‘국어’라는 과목을 따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교과에서는 국어를 활용할 뿐이다. ‘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국어과에서 일부 지문에 노동과 관련된 것을 다루거나, 노동과 관련된 시나 소설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② 이미 학습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학습자료와 교과서는 지위가 다르다. 학습자료는 그저 참고용에 불과하지만, 교과서는 정식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이 예전에 비해 많이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낮설어한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어 수업을 하고자 하여도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교과서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노동인권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경기도에 발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선택 교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선택을 하여 수업을 하는 학교의 수는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 비해 매우 적다. 하지만 그 교과서가 나온 덕분에 각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와 같은 부서를 설치하기도 하고,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민주시민교과서가 그랬듯이 ‘민주시민교육은 이런걸 하면 돼’라고 사례를 제시할 수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보충하고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③ 학생들은 이미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학습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교과를 강요하여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

학습량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학습량이 많은 것은 일부 교과에 집중되어 있고, 이 역시 입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제시한 후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중요한 것은 **삶-삶이 동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삶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융합과 통합이 필수이다. 때문에 학교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실시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림 13>은 전남공고에서 노동인권 과목을 개설한 것처럼 ‘고시외 과목’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 <표 25>는 미래학교에서의 교육과정편제표이다. 이처럼 이미 학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고시외 과목’ 목록

연번	시도	교육청	학교급 (중,고)	교과(군)			과목명	영문과목명
				보통교과 (전보선택)	전문교과 I	전문교과 II		
176	경기	고등학교			디자인 문화콘텐츠	발명입문	Basic of Invention	
177	경기	중학교	교양			통일시민	Citizen for reunification	
178	경기	고등학교	교양			통일시민	Citizen for reunification	
179	경기	고등학교	교양			민주시민	Democratic Citizenship	
180	경기	고등학교	교양			세계시민	Global Citizen	
181	경기	중학교	교양			세계시민	Global Citizen	
182	경남	고등학교	교양			뒷밭 가꾸기	Farming	
183	경남	고등학교	교양			옷 만들기	Making Clothes	
184	경남	고등학교	교양			음식 만들기	Cooking	
185	경남	고등학교	교양			이동학습	Field study	
186	경남	고등학교	교양			식구총회	Gandhi meeting	
187	경남	고등학교	교양			삶과 철학	Philosophy in life	
188	경남	고등학교			기계	조선기초실습	Shipbuilding Basic Practic	
189	경남	고등학교			보건-복지	인체구조와 기능	Body Structure & Functio	
190	경남	고등학교		체육 계열		우유 전공실기 기초	Basic Practice in Major of WL	
						마음공부	Mind using study	
						공동체회의	School community dabat	
						국토순례	Cross-country	
						현장학습	Field learning	
						과학교양	Science Classic	

<표 20> 군서미래국제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구분	교과(군)	과목		
선택 교과	교양	- 위기대처	- 지역교육봉사	무 학 년 (택 2)
		- 스마트팜	- 학교자치빅게임	
		- 창업	- 미래와첨단기술	
		- 성찰의방법과실제	- 이야기창작	
		- 공연실습	- 재미있는시사토론	
		- 청소년인성함양과리더십계발		
		- 중학교사회적경제	- 중학교철학	
		- 코딩수학	- 수학으로만드는3D입체모형	
		- 체육실기	- 드로잉	
예술 (미술)	예술 (음악)	- 스포츠경기실습	- 수채화	
		- 진로체험과포트폴리오	- 행복	
예술 (미술)	예술 (음악)	- 예술과문화	- 창작과공작	
		- 음악치유	- 세계음악여행	
체육	정보	- 러시아음악	- 중국음악	
		- 난타연주	- 난타창작	
정보	과학	- 뮤지컬이해		
		- 전공실기	- 전문실기	
과학	영어	- 체육심화		
		- 앱과코딩	- 소프트웨어와생활	
영어	수학	- 컴퓨팅과융합	- 인공지능과피지컬컴퓨팅의기초	
		- 시흥과학실험	- 과학자따라잡기	
수학	국어	- 그린에너지		
		- 영어리딩	- 기초영어회화	
국어	필수 교과	- 자신감을키우는영어발표		
		- 유희수학	- 수학으로세상이해하기	
필수 교과	제2 외국어및 한국어	- 빅데이터로세상이해하기	- 기초수 리터러시	
		- 창의적미디어읽기	- 우리시대고전읽기	
필수 교과	교양	품앗이여행		
		시흥디자인		
필수 교과	제2 외국어및 한국어	세상과문제를해결하는체인지메이커		
		- 생활중국어	- 생활러시아어	
필수 교과	제2 외국어및 한국어	- 중국문화권국가이해	- 러시아문화권국가이해	
		- 중국사회문화심층연구	- 러시아사회문화심층연구	
필수 교과	제2 외국어및 한국어	- 한국		
		국어/사회/영어 등		

출처 : 군서미래국제학교

<참고문헌>

- Council of Europe(2018). Reference Framework of Competences for Democratic Culture: Volume 1 Context, concepts and model.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Kelly. A.V. (2009). The curriculum: theory and practice(6th ed.). London: Sage.
- 장이화(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역량의 타당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815-835.
- 고미숙(2018).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프런티어.
- 곽병선·김재춘·조난심·박순경·홍후조·소경희(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주(2009). 사회과 인간상의 맥락적 구상.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a).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2015). 전문교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31]
- 교육부(2015).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 교육부(2015a).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5b). 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세종: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박창언, 김유라. (2016). 2015개정 교육과정의 쟁점과 교육철학의 과제 - 핵심역량과 교육목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59(0), 1-25.
- 박채형.(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현실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35-354
-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17)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노동인권 교재 및 안내서 개발. 서교연 2017-89.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 설규주·옹진환·정수진(2019),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수업 모델 연구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백서
- 이운복, 강현석.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그 시사점 탐구. 중등교육연구, 63(4), 435-464.
- 이혜정·박미희·장운호·김영미(2014),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106-107.
- 임유나(2016). 역량기반 수업 구현을 위한 지원 사례 탐색: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32(3), 59-88.
- 조상연.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등교육연구,

28(3), 199-227.

진숙경, 김현진, 신호재, 장윤희, 정현이, 김영미, 박정원(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최덕현·김진·백선영·안명희·윤경희·이민숙·이철호·장인하·조민지(2019), 「중등 노동교육
방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24~30쪽

통계청(2021) 2021년 6월 고용 동향 보고서

희정(2014), 「노동자 쓰러지다」오월의봄 57-58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뉴질랜드 교육과정 사이트 (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https://nzcurriculum.tki.org.nz/The-New-Zealand-Curriculum>)

뉴질랜드 사회과학 교과 사이트 (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https://ssol.tki.org.nz/>)

덴마크 교육부 사이트(2020년 6월 1일 ~ 6월 7일 검색)

(<https://eng.uvm.dk>)

덴마크 학습포털(2020년 6월 1일 ~ 6월 7일 검색)

(<https://emu.dk/>)

군서미래국제학교(2021), 2021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광주전자고등학교, 2021학년도 학과별 교육과정 이수 단위 편성표, 학교알리미(검색일 :
2021년 7월 13일)

전남공업고등학교, 2021학년도 전학년 교육과정 이수 단위 편성표, 학교알리미(검색일 :
2021년 7월 13일)

사진 및 그래픽

MBN, 2016. 12. 11

아시아경제, 2018. 05. 04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 및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 머니투데이,
2020.05.13

발제 4.

일하는 청소년·청년이 요구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

-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이사장



일하는 청소년·청년이 요구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1. 청소년 노동 실태

청소년의 노동 실태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¹⁾에는 청소년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일부 내용을 인용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28.7%)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를 받지 않았다’(18.3%)

○ 근로계약 관련 부당한 경험

-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 혹은 부가적인 일을 부여함’(15.8%),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함’(9.5%)
- ‘1개월 내 또는 도중에 그만두면 임금을 안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한 적이 있음’(8.9%)

○ 근로시간 관련 부당한 경험

-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하거나 초과하여 일하도록 요구함’(17.3%)
-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16.9%)
- ‘시간 낭비(마냥 대기)’(13.9%)
- ‘휴가를 부여받지 못함’(5.9%)

○ 임금 관련 부당한 경험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음’(12.4%)
-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함’(9.5%)
-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받지 못함’(9.3%)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받지 못함’(7.2%)

○ 기타 부당한 경험

- ‘경험자가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을 나 혼자 하라고 함’(8.4%)
-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8.2%)

1) 장명선·김유나·김재민·박건·이소라(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 '보호장비가 필요한 일인데 보호장비를 주지 않음'(5.1%)

○ 폭언, 폭력, 성희롱 등과 관련 부당한 경험

- '호칭과 반말, 무시'(41.8%)
- '욕설, 폭언'(28.3%)
-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성희롱)'(11.4%)
- '사적 만남 요구'(7.6%)
- '성폭행 또는 성추행'(7.2%)
- '물리적 폭행'(7%)

○ 부당한 경험 후 해결 방법

- '참고 일했다'(38.8%)
- '친구에게 이야기했다'(16.2%)
-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15.4%)
- '개인적으로 직접 항의하였다' 또는 '가족에게 알렸다'(각각 9.1%)
-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4.2%)
- '교사나 지원기관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였다'(2.9%)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²⁾에서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3,2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래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전체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52.1%)
-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로부터 계약서 1부를 받았음'(37.6%)
-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받아보지는 못함'(10.3%)

○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여부

- '있음'(49.8%)
- '없음'(49.8%)

○ 부당대우 경험 내용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한 적 있음'(23.6%)
- '임금을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음'(23.2%)
-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적 있음'(18.3%)

2) 임형문·고병연·이승희·조상균·허창영·임동현·홍관희(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 광주광역시교육청.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나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 있음'(16.0%)
- '근무 장소나 내용이 처음 약속과 다른 적 있음'(15.2%)
- '일하는 시간 중 손님이 없거나 적은 한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 주기로 한 임금보다 더 적게 받은 적 있음'(14.1%)
- '일방적이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적 있음'(13.3%)
- '부상 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적 있음'(8.7%)

○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응 방법

- '해결 방법을 알지만 참고 계속 일함'(35.5%)
- '일을 그만 둠'(30.1%)
- '개인적으로 항의함'(21.5%)
-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함'(17.2%)
- '고용노동부에 신고함'(5.4%), '경찰에 신고함'(4.3%)

○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 '필요함'(90.1%), '필요 없음'(9.6%)

위의 두 연구보고서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듯이 청소년 노동 실태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 받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거나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의 두 가지 연구보고서만 인용했지만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는 다른 연구보고서의 내용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의 행동을 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는 대응 방법을 잘 모르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며, 정확한 법기준을 잘 몰라 문제 해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상당수는 제대로 아는 것, 노동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노동실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알려짐에도 비슷한 현실이 유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를 겪은 청소년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에 사업주의 부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실습 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여 졸업 전 실습과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현장실습 사망사고를 계기로 알려진 현장실습생의 노동 실태 역시 위의 보고서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사

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문제나 괴롭힘 문제는 일반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청소년·청년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급한 삶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현재 노동교육에 대한 청소년·청년의 생각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에서 직업계고 3학년과 졸업생 7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연구보고서³⁾의 내용 중 자신이 경험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여 청소년·청년의 생각을 살펴보겠다.

○ 노동인권교육의 현재 운영상 문제점

“근로계약서랑 부당한 일 당했을 때, 진로시간에도 해줘요. 3학년 진로시간이 생기는데 3학년 2학기 때 그때도 해주고, (도움이 됐는지?) 아니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취업할 때 부당한 일 생기면 참으라 해요. 어차피 다녀야 하고 취업 또 못 시켜주니까.”

“교육을 받긴 했는데요. 너무 느낀 게 있어요. 솔직히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무적으로 들을 상황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대요. 영상 같은 거를 듣는 게 있어요. 근데 다 자고, 안보고, 다 멍 때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효율이 진짜 없다고 보거든요.”

“딱 한 번 받았는데 지루하게 받았어요. 3학년 말에 그것도 실습 나간 애들은 못 받고, 인권강사가 와서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돈 든다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한테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하셨어요. 선생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30분하고 30분 우리끼리 놀았어요.”

“아마 1년에 2번인가 4번 정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내용은 항상 비슷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거랑 예시를 주시고 ‘어떤 게 잘못 됐을까?’ 엄청 큰 전지를 가져오셔서 ‘근로계약서를 써보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 그런데 이게 사회에 나와보니까 어렵거든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문

3) 이상현·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2020). 특성화고 학생·졸업생 교육·노동환경 및 차별 실태조사.

제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강당에서 해 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언제 했는지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노무사님 오셔서 강의했던 거 같아요.”

“인터넷강의 100% 이수해야만 한다고 해서 3학년 1학기 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넘기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시험도 대충 찍으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여서 몇 시간 이상이면 이수 분량이라 시간만 채우고 넘겨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포털 아이디 비번 알려주고, 알아서 들어오라고 해요. 이수 안 되면 취업 못 해, 라고 해서 애들이 억지로. 그냥 들은 것도 아니고 수료증을 받은 거죠.”

“우리도 일 년에 두 세 번하고 강당에 전교생 불러서 강사분 불러서 할 때 있고. 작은 시청각실이나 그런 데서 할 때 있는데 영상을 틀어주시는데 강의할 때 집중하는 애들만 하고 자거나 딴짓하는 경우 많아서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때 많아요.”

○ 효과가 있었던 노동인권교육

“각 반 교실에서 진행이 되었고 교육자료 같은 것이 풍부해서 좋았어요. 시각 자료들이 많아서 좋았고 실제로 내가 사장이 되어서 어떤 조건으로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 사용자 입장도 되어보고 노동자 입장도 되어보는 시간이 좋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써보기. 그런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외에는 아예 모든 교육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강당 교육은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저도 관심은 많은데 보고 싶지가 않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듣고 노동인권 캠프를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해요. 전문 강사 선생님이 오세요. 다 모여서 강의를 듣는 형태 근로계약서도 써보고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부당한지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작은 것이더라도 야근수당 얼마 받아야 하고, 저희가 아는 건 최저시급 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몇 시간 일할 수 있고 알려주셨어요.”

○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요구

“노동법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지역 노무사 있잖아요. 그 노무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사례를 알려주시긴 하는데 알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청소년 알바. 쓸모가 없죠.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야간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안 줬다 하면 어디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지.”

“저희 학교에서 흡연 교육했을 때 뮤지컬로 해서 애들이 되게 머릿속에 쑥쑥 들어가고. 이런 것도 뮤지컬 형식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대처해야 되는지, 이걸 뮤지컬 형식으로 보여주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알아야 할 것들. 실업급여나 사대보험 왜 필요한가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학생 개인별로 나에게 노동이란 뭐지, 생각할 그런 질문을 던져줄만한 교육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은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대부분 나가는데, 현장실습 임금을 어느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했음 좋겠고, 회사에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거절 하는지랑, 그리고 그 부당한 대우를 학생들이 받을 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이런 게 있다고 꼭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식으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손을 아예 떼버리기 때문에 학교에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어느 기관에 받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현실감있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임금적인 거든 신체적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강당에서 하는 전체적인 교육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요. 거의 뭐 몇 백명이 수업을 듣는데. 영상물 시청방식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3. 어떤 노동교육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어떤 노동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동교육

노동교육이 거의 없었던 학교에 조례를 통해 교육이 의무화되고, 일반 수업시간이 아닌 창체시간 등을 활용하더라도 정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두 시간의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다.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한계는 명확하다.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루어야 하는 내용과 양이 상당하기에 이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지적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기억에 남는다’는 내용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 생활과 문화에서 함께 익히는 권리의식 필요

노동교육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권리의식이다. 권리의식은 지식 전달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학교에서 교사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 일종의 상명하복과 같은 문화가 만연한 학교생활을 한 경우, 노동을 할 때 여러모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쉽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집단적인 언론활동,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통제적인 학교생활을 거쳤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분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이는 권리의식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교육은 수평적 관계, 건강한 토론문화, 자유로운 공동체 활동, 스스로 문제를 개선해보는 경험 등이 보장되는 학교생활이 뒷받침되어야 그 권리의식이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시간에는 과업을 준비하는 노동조합활동을 실습하고, 학교생활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학생회활동이 가로막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 감수성과 지식을 동시에

현재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인권교육의 한계로 파생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노

동감수성과 노동(법)지식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감수성과 지식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노동교육에 있어 모두 필요한 내용이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노동존중 인식을 가지는 등의 문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포함한 구체적 지식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모두 포괄하는 노동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노동교육은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노동자만을 위한 교육은 아닐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 중 사용자가 잘 모르거나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많다. 노동법 교육을 받는 노동자들은 이런 교육을 사용자에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 사용자 역시 노동법을 잘 알아야 지킬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존중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즉, 사용자에게도 노동교육은 필요하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의 가족이 된다. 또 일부는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이러한 학생들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자신이 노동자이든 사용자이든 노동과 무관한 삶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사용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노동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노동교육

위에서 확인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실태조사 응답은 90.1%였다(임형문 외, 2020). 노동교육의 제도화가 학생들의 요구라는 것은 이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제도화일 것이다. 나아가 제도화가 이루어진 뒤에 노동교육이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 원하는 방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그 교육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